

글. 노은주 Roh, Eun-joo

본지 편집위원

작은 집에 산다는 것

About Living Small

2013년 가을 EBS에서 개최한 국제다큐영화제(EIDF)에서 '건축 다큐 북 콘서트'라고, 다큐 멘터리 상영 후 한국의 도시와 건축에 대해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초대되었던 적이 있다. 영화평론가와 관객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었던 영화는 <작은 집에 산다는 것(TINY: A Story about Living Small)>이라는 작품이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라는 미국의 젊은이가 여자친구 므렛 윌러와 함께 자신이 살 집을 직접 짓는다. 군인인 아버지 때문에 평생 스무 번 이상 이사를 하면서 자신이 정말 살고 싶은 동네가 어떤 곳인지 생각하면서, 꿈과 이상을 담은 집을 고민해온 그는 트레일러에 싣고 옮겨 다닐 수 있는 3평 남짓한 집을 1년에 걸쳐 지으며 그 과정을 영화에 담았다. 집짓기에 아무 경험도 없는 젊은이가 대형 할인점에서 자재와 공구를 사고 유튜브에서 사용법을 익히고 똑딱똑딱 집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저런 것이 건축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며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지난 40여 년간 미국인들은 집을 보다 더 크고 넓게 짓는 데 치중했고 결과적으로 집은 평균 2배 더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넓은 면적이 집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영화 속의 질문은 우리들, 더 '넓고'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며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사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

또한 그런 사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등에서 얻어진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각이기도하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집에 집착했을까?" 그들은 모여서 그런 반성을 하며 집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노력한다. 미국의 타이니 하우스(tiny house), 일본의 9평 하우스 등이 모두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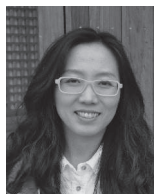
그런 자각은 우리에게도 찾아왔다. 산업화의 시기를 거치며 '광풍'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하게 어울리는 아파트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세월 동안 우리는 집에 대한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적정함을 잃어버린 채 넓은 집과 큰 가구에 눌러서 살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몸에도 맞지 않은 큰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서서히 집이 더 이상 화수분처럼 늘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각과 더불어 집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에 지방의 한 도시에 오래된 집을 하나 고친 적이 있다. 그 집은 40년 전에 지어진 세 칸 넓이의 한옥이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33㎡(10평) 정도 되고 부엌 한 칸, 방 두 칸, 그리고 다락이 있는 아주 단촐한 규모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집을 다 고친 후 집들이에 온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모두 아련한 눈빛으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반가워했다. 어릴 때 이 정도 규모의 집에서 삼대가 살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한 칸은 세를 주고 나머지 방과 다락에 온 식구가 살았다는 사람까지 나왔다. 마치 작게 살았던 경험의 경쟁을 벌이기라도 하는 듯했다.

물론 그런 경험은 조금 극단적이긴 하고, 지금은 그때와 경제 규모와 라이프스타일이 판이



금산주택, 루치아의 뜰, 신진말 빌딩, 존경과 행복의 집, 적십자 시리어스 리퀘스트,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등을 설계했고, 공간디자인대상, 아천건축상 등을 수상했다. 『그들은 그 집에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 『사람을 살리는 집』, 『나무처럼 자라는 집』, 『서울풍경화첩』 등 9권의 저서를 냈다.



하게 다르긴 하다. 그렇지만 그 동안 그만큼 몇 배로 몸이 커진 것도 가족의 규모가 커진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우리의 허세만 커진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매사에 적당함이 필요하다. 부족하지도 않아야 하겠지만 과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며 우리가 사는 집에도 적용되는 아주 귀중한 생각이다. 결국 지금 우리 시대의 '작은 집'이란 적당한 집, 몸에 맞는 집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근래에 정말로 '작은 집'을 짓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관련된 전시나 기사도 부쩍 늘어났다.

다만 그러다보니 작은 집의 의미보다는 좁은 땅을 활용한다는 경제적 측면이 좀 더 부각되는 것은 걱정스럽다. 얼마 전부터 갑자기 등장한 '협소주택(狹小住宅)'이 부각되는 것도 그렇다. 협소주택이란 일본의 주택 유형으로 그야말로 협소한 토지에 지어진 협소한 주택을 부르는 이름이다. 도심의 소규모 대지에 짓는 극단적으로 작은 집들, 예를 들어 50㎡ 이하의 대지에 건축면적 30㎡ (9~10평) 내외의 집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어쩐지 어감이 어색하다 했더니 역시 일본에서 온 용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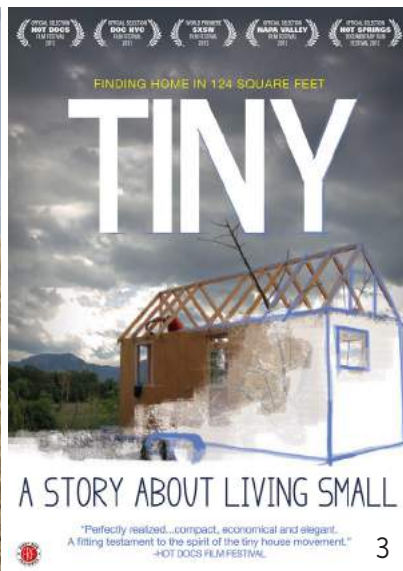
그 '협소'란 말은 사실 무척 거슬린다. 알다시피 공간이 아주 작다

는 것을 강조하는, 혹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나 아량이 좁다는 뜻도 가진 그 단어에는 약간은 뼈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말로 간단히 '작은 집'이라 부르면 될 것을 굳이 '협소주택'이라고 어색한 남의 나라 용어까지 빌려다 써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일본이야 워낙에 필지가 구획된 형태가 그래서인지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좁고 긴 형태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도 협소주택의 사례를 들 때는 최소한의 주거에 설계자의 이상을 구현한 안도 타다오(安藤忠雄)의 스미요시 주택이나 아주마 다카미츠(東孝光)의 '탑의 집' 등을 손꼽는다. 모두 주거사에 남을 만한 작품이자 그 건축사들의 대표작들이라는 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

말하자면 '작은 집에 산다는 것'은 그저 작은 공간으로 집의 규모와 살림살이를 줄여 간다는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관습과 편견과 의무와 타인의 시선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 집은 왜소한 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남루한 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규모와 치장으로 상징되는 내보이고 싶어 하는 집 혹은 재산으로서의 집이나 소유에 대한 욕망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집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_ 공주의 작은 집, 루치아의 돌 2_ 작은 집에 산다는 것, 영화 스틸컷 3_ 작은 집에 산다는 것 포스터 4_ 아주마 다카미츠, 탑의 집



글. 정이숙_ Jeong, Yi-suk

(주)플랜티브 이사

아파트 광고 속의 공간, 현실의 공간

Space of apartment in advertisement, space of reality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유럽의 성(城)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아야 하는 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2009년에 전파를 타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대림산업의 아파트 브랜드 e편한 세상의 TV-CM 카피이다. 실제로 그랬다. 저 광고가 나오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아파트 광고들은 톱스타들과 화려한 인테리어의 경연장이었다. 광고 속의 공간은 우리가 사는 현실과 완전히 다르게 꾸며졌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넓은 실내와 빠다 느낌 나는 외국인 모델을 섭외하기 위해 외국에 나가서 촬영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광고 속의 아파트는 현실보다 고급스럽고 깨끗했다. 먹다 남은 그릇들이 식탁에 놓여있지도 않았고 프라이팬이나 냄비가 가스 레인지에 올려져 있지도 않았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거실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고 통유리창 밖으로는 근사한 야경이나 탁 트인 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그 곳에는 잡지 화보에서 막 튀어 나온 것 같은 웃을 입은 부부와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그랬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파격을 행한 것이 바로 e편한세상의 진심광고 시리즈이다. '1층은 비인기 층이다', '주차장이 너무 좁다', '새 집 냄새가 걱정이다'와 같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점들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광고의 소구 포인트로 삼은 것이다. 2년에 걸쳐 14편 정도가 제작된 '진심이 짓는다'시리즈는 광고효과를 톡톡히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12월 부동산 114가 전국 1460명을 대상으로 '2010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e편한세상은 3위에 올랐고 2014년 조사에서는 래미안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광고 직후인 2010년의 조사에서 e편한세상을 선택한 응답자들 중에는 '광고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e편한 세상의 시도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인지 작년에 전파를 탄 삼성 래미안의 TV-CM은 아예 실제 래미안 안에서 촬영되었다. 카메라는 시장에서 현관문까지 장바구니를 든 주부 뒤를 따라 가고, 운전 울렁증이 있는 주부와 함께 주차장만 빙빙 돌기도 한다. 아파트에 사는 실제 주민을 모델로 써서 실제 아파트 안에서 촬영한 래미안의 광고는 현실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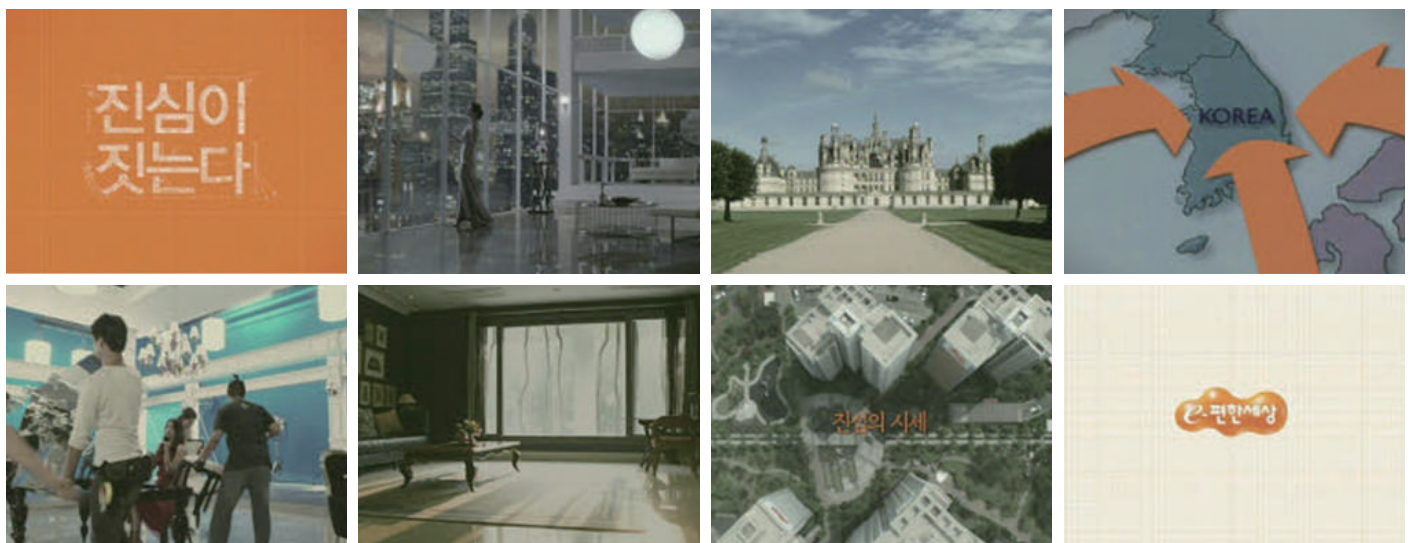
한국의 아파트는 1932년 일본에 의해 세워진 서울 충정로의 5층 유림아파트가 처음이었다. 광복 후에는 1961년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마포지구에 도화 아파트를 건설하여 근대식 아파트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이때부터 한국에서 아파트 시대가 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1967년에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아파트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 정릉 흥재동 문화촌 등의 소규모 아파트에서부터 한남동의

힐탑아파트, 화곡동아파트 등 대형 고층아파트가 세워졌다. 특히 70년 중산층용으로 최초의 중앙식 중온수공급 보일러를 설치한 한강맨션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본격적인 붐이 일어났다. 1970년에는 준공한 후 불과 4개월 된 마포구 창전동 와우지구 시민아파트 15동 건물 전체가 붕괴하여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7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는 주거지라기 보다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는 주거지로서의 현실 공간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광고 또한 아파트가 보장해 주는 시세차익과 투자가치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바빴다.

다시 생각하면 최근 아파트 광고가 현실의 공간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일 것이다. 물개성한 획일적 설계, 열악한 방음과 단열장치,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 등 아파트라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필자는 최근에 지은 지 30여 년 된 목동의 아파트에 살다가 새로 조성된 주거 단지의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어떻게 알뜰하게 설계를 했는지 같은 평형대의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지 않는 아파트인데 넓은 거실과 화장실 두 개, 드레스룸까지 갖추었다. 베란다에는 화분에 물을 줄 수

있게 수도시설을 마련해 두었고, 단열을 잘 한 탓인지 겨우내 보일러를 많이 돌릴 필요가 없어서 난방비도 줄었다. 오랜 건설 경기 불황으로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도 광고 속의 공간이 변하는 데 한 몫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아파트가 당장 큰 수익을 내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눈을 뜨고 있다. 결국은 설계가 잘 된 최신의 아파트가 더 많은 값을 받는 시장의 움직임이 실제의 아파트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도록 자극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아파트 광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분양이 잘 되지 않으니 짓지 않고 짓지 않으니 광고도 줄어든 것이다. 분양 관련한 신문광고나 전단지, 홍보용 브로슈어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 중심 광고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많은 메이저 아파트 브랜드들의 TV-CM이 공중파에서 자취를 감춘 지 몇 년은 된 것 같다. 앞으로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 광고들이 다시 활개칠 날이 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전처럼 화려한 이미지로 환상만을 자극하는 공간을 보여주는 아파트 광고는 더 이상 성공하지 못 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O+A 빌딩

O+A Building





설계자 | 오신욱 KIRA | 라움 건축사사무소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설계과정에서 스키마(schema)의 의미와 작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건축사 노정민과 라움건축(Raum)을 설립하여 부산 외국어대학교 마스터 플랜 현상 설계에 당선되었고, 반쪽집, 아이누리 아트센터, 마로인사옥, 옥상라움, O+A 등 다수의 작업을 하였다. 타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과 두차례 [공상전]을 통해 공간실험을 병행하였고, 2014 사고와 발현[땀]잔집에 참여하였다. 최근 10by200 건축사 강연에 참여하였고, 건축사의 의자전을 기획하여 '짓는 자'를 출판하였다. 현재 동아대학교 겸임교수이고 2013년 부산 신인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1. 남동측 전경 1
2. 남동측 전경 2
3. 북측 전경
4. 입구

건축주 | 최은석

감리자 | 라움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대정종합건설

대지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1298-114번지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71.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8.11㎡

연면적(Gross Floor Area) | 397.0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9.07%

용적률(Floor Area Ratio) | 232.20%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노출콘크리트, 테라코타

- 내부 : 석고보드 위 V.P도장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11 ~ 2013.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6 ~ 2014. 03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 설계팀 : 노정민, 하정운, 김대원, 유성철, 안신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세명구조

- 기계설비분야 : 신흥ENG

- 전기분야 : 영신ENG

- 소방분야 : 신흥ENG, 영신ENG

Client | Choi, Eunseok

Architect | Oh, Sinwook

Project team | No, Jeongmin / Ha Jeoungun / Kim, Daewon /

Yu, Seongcheol / An, Shin

Location | 1298-114, Beomcheon-dong, Busanjin-gu, Busan, Korea

Structure |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In Structure Engineering

HVAC Engineer | Shinheung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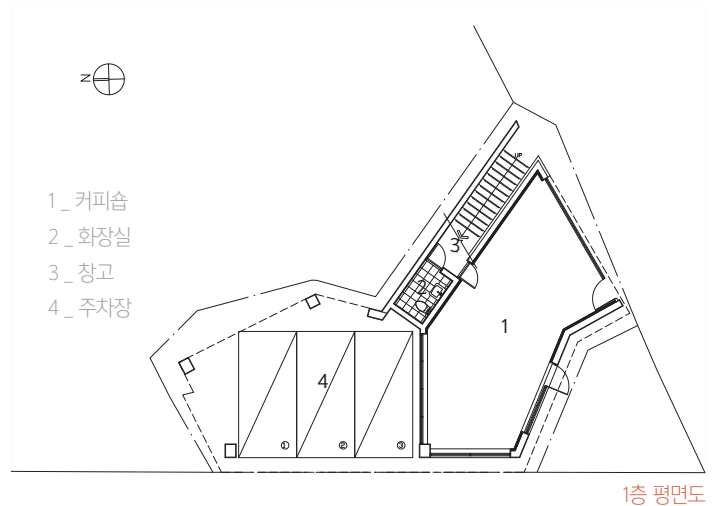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Young Shin Engineering

Fire Engineer | Shinheung Engineering, Young Shin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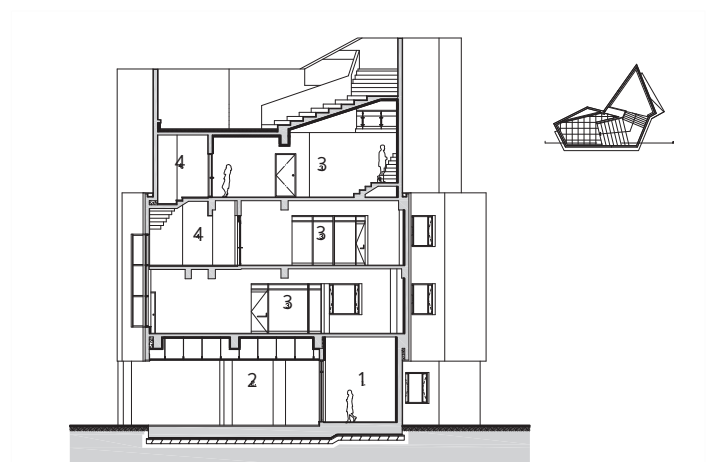
Finishing |

Exterior : Exposed Mass Concrete, Terra Coat

Interior : V.P. on Plaster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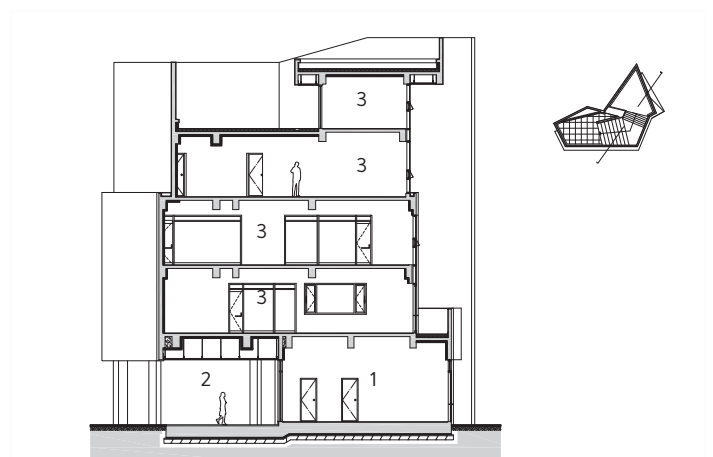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1

1_ 커피숍 2_ 주차장 3_ 사무실 4_ 계단실



단면도 2



함께 건축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술을 마셔보자고 제안 받았던 색다른 출발을 가진 O+A 빌딩은 막연한 임대목적과 건축주의 사무실이 주 용도였다. 독특한 비정형 대지의 건축 작업에서 관계라는 문제인식을 건축물에 어떻게 투영시킬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우선 땅의 형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선들을 3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즉, 들뜨우기를 하면서 수직적으로 재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형상을 완성해 낸 것이다. 정면도 내부공간의 들뜨우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표면의 차이를 드러내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매 층마다 다른 시선을 제공한다. 내부의 계단은 마치 산복도로의 골목길과 계단을 오르는 경험을 담고자 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공간의 이미지를 체득하기를 기대했고, 이 공간의 경험이 도시와 건축물의 관계를 이미지로 받아들이 시간적, 장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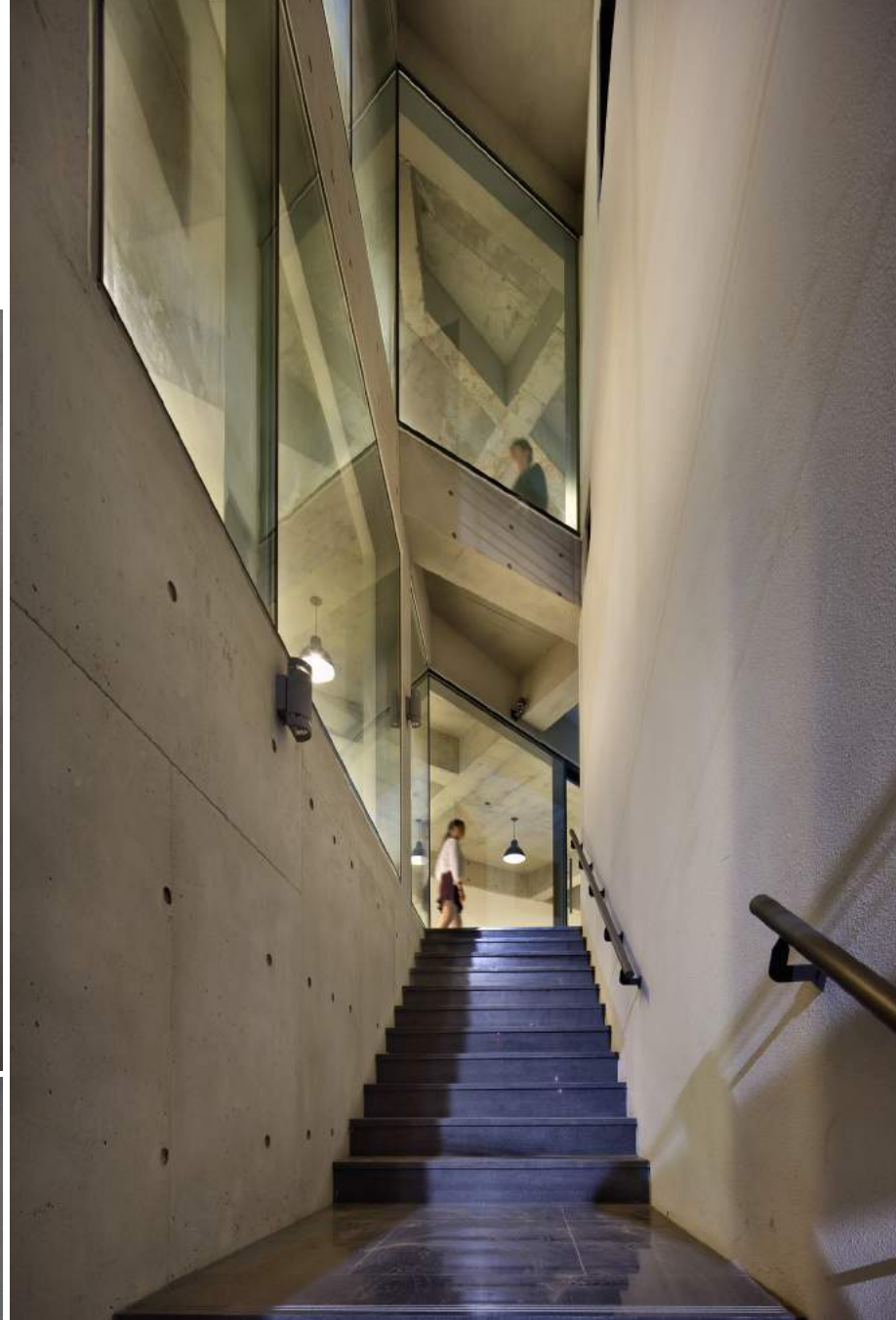
이 작품을 통해서 건축공간이 도시나 지역과 단절된 지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로 제공되어 새로운 관계와 기억을 만들어주는 장소로 남기를 원했다. 건축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기 위해 <새집에 보따리를 풀다>라는 전시를 시도하였다. 비로소 이 전시를 통해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가능성은 보따리(문화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실천, 검증 되었다.

못 생긴 땅, 소외된 상황, 짜투리, 틈새의 활용 이것들이 건축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편하고 쉬운 상황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의 건축이 우리가 작품으로 다가가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건축의 지

식과 문화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이웃도 아름다운 건축, 작품으로서의 건축, 좋은 건축을 경험하고 누릴 권리는 있다. 이에 건축사는 건축을 통해서 소외되고 건축문화를 느껴보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건축과정과 건축공간은 사람도, 인생도, 가치관도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시대, 우리 도시에는 이것을 실천하는 건축사가 필요하다.

하나의 점으로만 위치하는 건축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주는 건축, 새로운 개념으로 엮일 수 있는 건축을 모색한다. 그래서 건축사의 역할도 건축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축주의 요구뿐만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에 있을 것이다. O+A 빌딩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사용되기 전의 일정기간을 예술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와 건축주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술가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는 건축과 예술이 하나의 공간에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게 하였다. 전 시기간에는 건축사, 학생, 일반인, 미술작가들이 집들이 행사에 참여한 것처럼 새집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공간의 사용을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축주는 공간답게 사용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또 다른 집들이를 꿈꾸며 이것이 사람과 건축, 그리고 도시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해 the큰병원

Gimhae The Grand Hospital





- 1. 남서측 전경
- 2. 야경
- 3. 외부공간



설계자 | 김용남_KIRA | (주)삼현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해 실무를 익혔다.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동아대학교 건축과 외래교수를 역임했고, 주요작품으로는 레지던스 엘가, 베르나움, 디온플레이스, 센텀뷰라움, 김해 더큰병원, 레지던스 라움, 부전동 베스트웨스턴 호텔, IBIS호텔+스마트 병원 복합시설 Rock'wok 등이 있다.

건축주 | the큰병원

감리자 | (주)삼현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에스티에이

대지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3-5

주요용도 | 의료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276.1㎡

건축면적(Building Area) | 873.32㎡

연면적(Gross Floor Area) | 9,238.93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8.437%

용적률(Floor Area Ratio) | 592.149%

규모(Building Scope) | 지하2층, 지상10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알루미늄 루버, 투명복층유리

- 내부 : PV도장, 폴리싱 타일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11 ~ 2013. 0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4 ~ 2014. 05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 설계팀 : 정운영, 김미진, 김민정, 서동건, 하영혜, 허재녕, 정재우,
임동현, 조영래, 최이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센구조연구소

- 기계설비분야 : (주)중앙이엠씨

- 전기분야 : (주)광명토탈 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 (주)중앙이엠씨

Client | The Grand Hospital

Architect | Kim, Yongnam

Project team | Jung, Unyeong / Kim, Mijin / Kim, Minjeong /

Seo, Donggeon / Ha Yeonghye / Heo, Jaenyeong /

Jeong, Jaeu / Lim, Donghyeon/ Cho Yeongrae /

Choi, Yeeseul

Location | 1263-5, Oe-dong,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STA Co.,LTD

HVAC Engineer | Jung Ang MEC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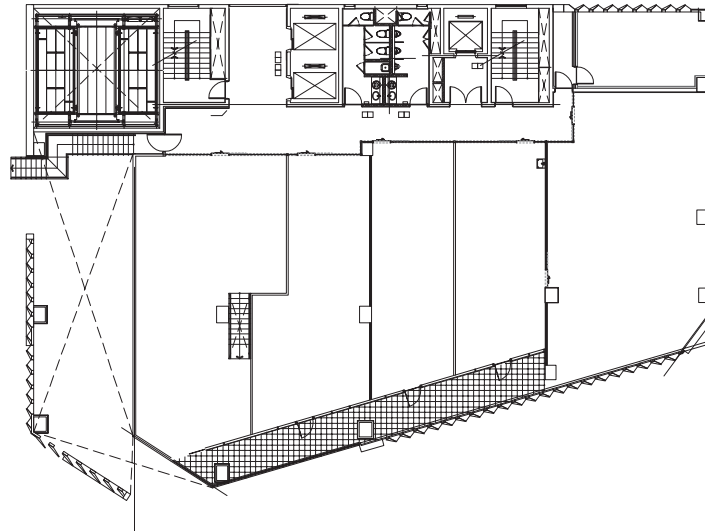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Kwang Myung Total Engineering Co.,Ltd

Fire Engineer | Jung Ang MEC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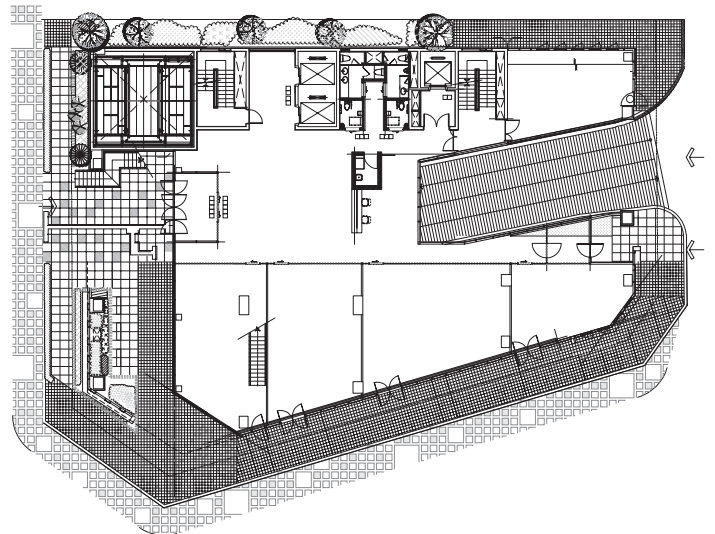
Finishing |

Exterior : Aluminium louver, Transparent insulating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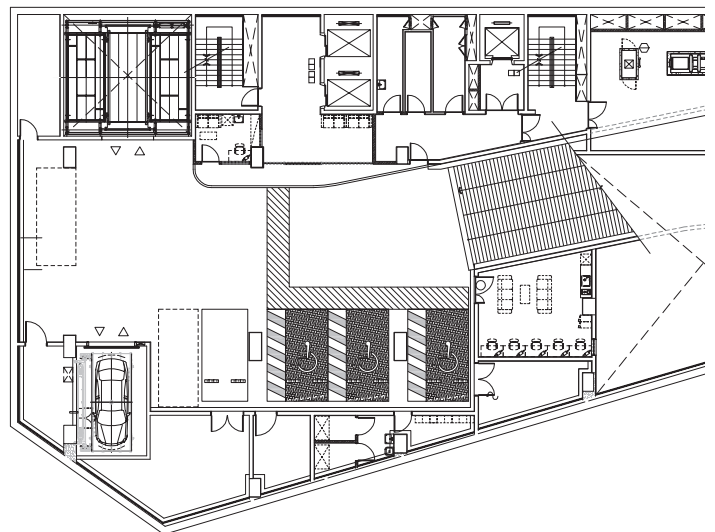
Interior : PV painting, Polishing t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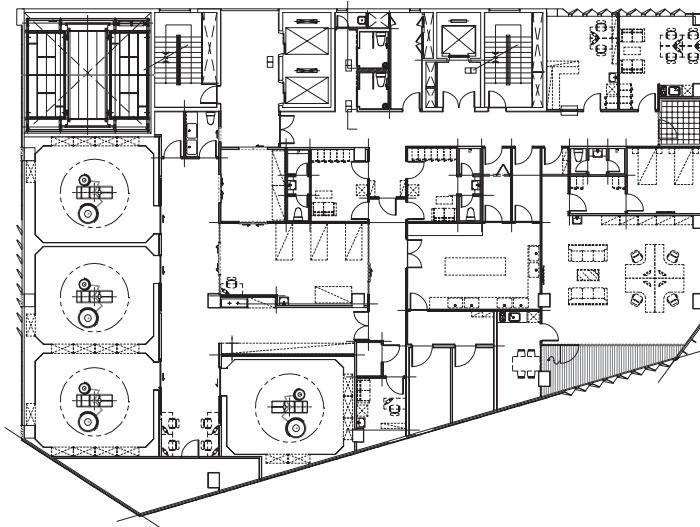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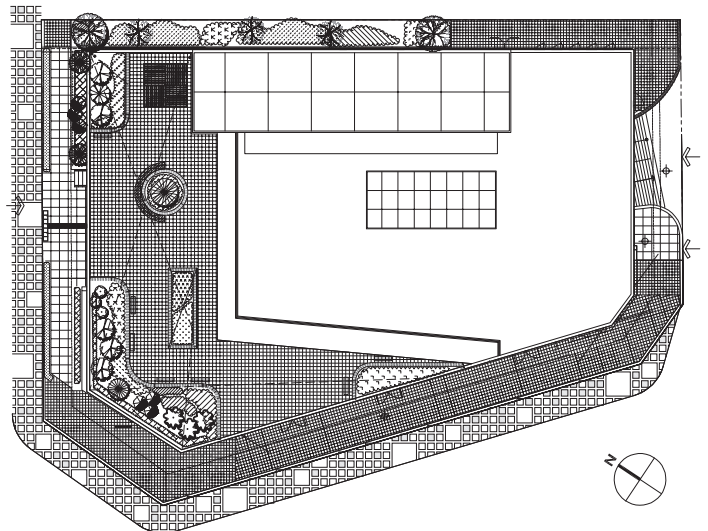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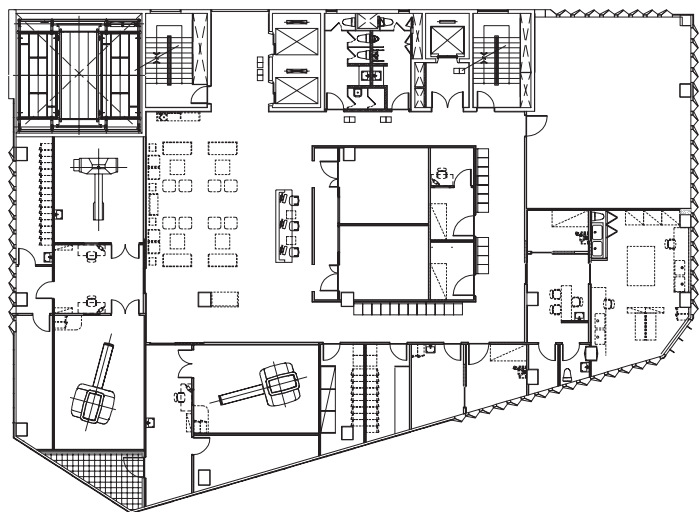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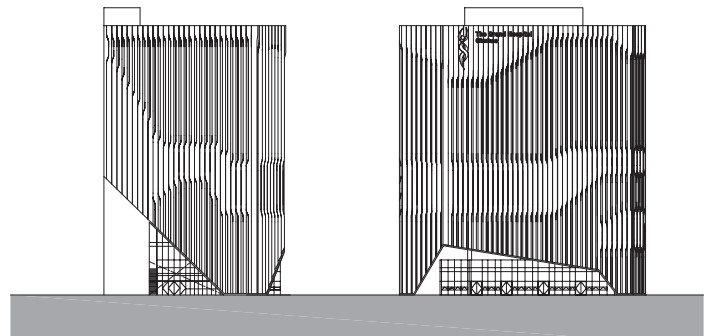
4층 평면도



배지도



3층 평면도



입면도

김해 더큰병원은 대지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특성을 극대화한 최적화된 대안이 목표였다. 각 특성들을 고유한 Need로 적용하고 그 Need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외부 표피가 되었다.

의료시설의 특성상 24시간 운용되며 에너지적인 측면이 병원의 수익성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본 사이트의 4면중 남향면이 최소이고 서향면이 가장 넓은 도로에 가장 길게 접하고 있어 가장 불리한 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에너지 절약방식에서 일시적 효용이 있는 설비적인 장치를 최대한 배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화된 에너지 절약방식으로 고안된 수직, 수평 루버를 외피방식으로 선택하고 내부에 중정을 배치하여 자연환기 극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수용된 방식이 외부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디자인이 되었다.





수원 KT위즈파크

Suwon Baseball Stadium Remode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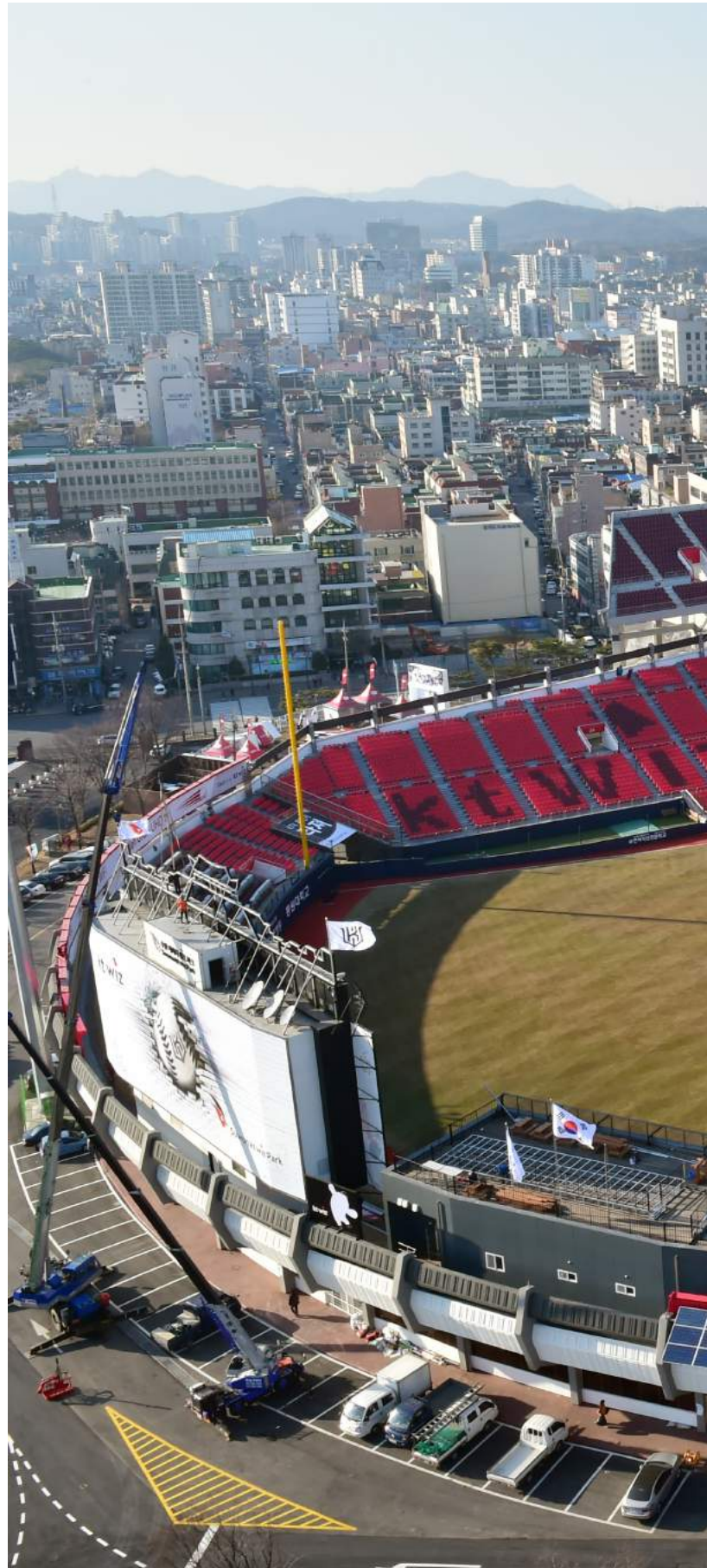
설계자 | 오성제_KIRA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성균관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주)성림건축에서 문화집회 시설 및 공공청사 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했으며, (주)건원건축 재직시에는 대규모 공공개발 프로젝트 및 주거단지계획 설계를 다수 수행하면서 2006년에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를 설립하여 현재 젊은 건축사들과 더불어 작품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회사 설립 이후 줄곧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전략 프로젝트인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수립”, “한강변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목동신시가지 Master plan” 등 다수의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기술제안”, “포항터미널복합개발사업마스터플랜”, “화순복합문화체육관TK” 등 다양한 건축분야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건축·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및 교육시설학회에서 이사로 활동하면서 ANU디자인그룹(주) 총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건축주 | 수원시청

감리자 |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동부건설(주)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87,491.6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3,356.70㎡

연면적(Gross Floor Area) | 19,939.4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8.58%

용적률(Floor Area Ratio) | 32.85%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4층

구조 | PC조(주요구조부, 증축스탠드)+RC조(계단)+철골조(지붕)

주요마감재 |

- 외부 : 친환경 수성페인트
- 내부 : 친환경 수성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1 ~ 2015.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8 ~ 2015. 03

- 설계팀 : 지태우, 이주현, 백기현, 양준호, 박시문, 이호형, 김소양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아이맥스트럭처, 아이스트
 - 기계설비분야 : 삼원엠이씨
 - 전기분야 : 세진전기
 - 소방분야 : 한석소방
 - 토 목 : 지오그룹
 - 조 경 : 씨엔케이

Client : Suwon City Hall

Architect : Oh, Sungjae

Project Team : Oh, Sunjae, / Jee, Taewoo / Lee, Juhyun / Baik, Kihyun /
Yang, Jamie / Park, Simon / Lee, Hohyung / Kim, Soyang

Location : 775 Jowon-dong, Jangan-gu, Suwon-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PC, SRC

Structure Engineer : AIMAC Structure
I'st Structure

HVAC Engineer : Sahmwon

Electrical Engineer : Se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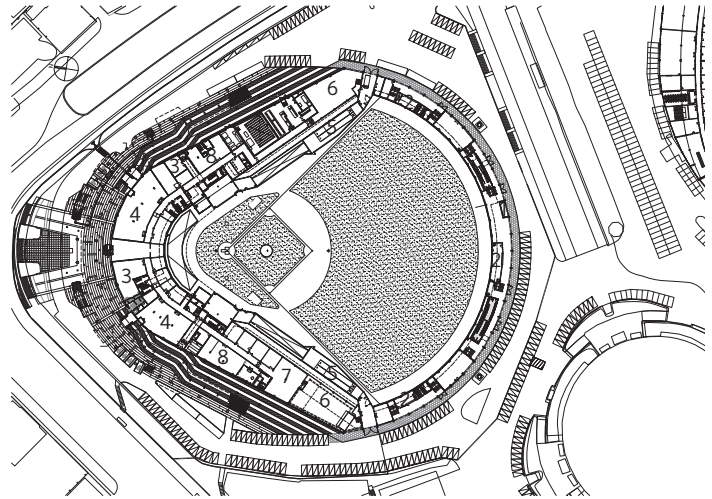
Fire Engineer : Hansuk

Landscape : CnK

Fin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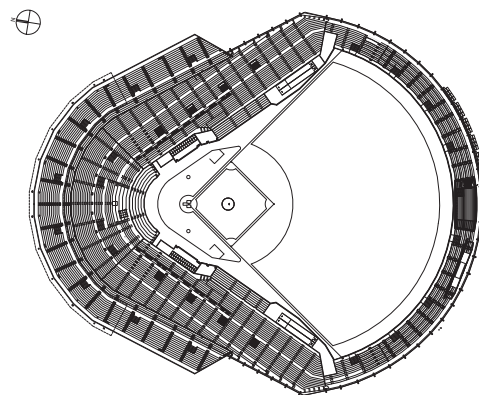
Exterior : Advanced Natural Paint

Interior : Advanced Natural Pa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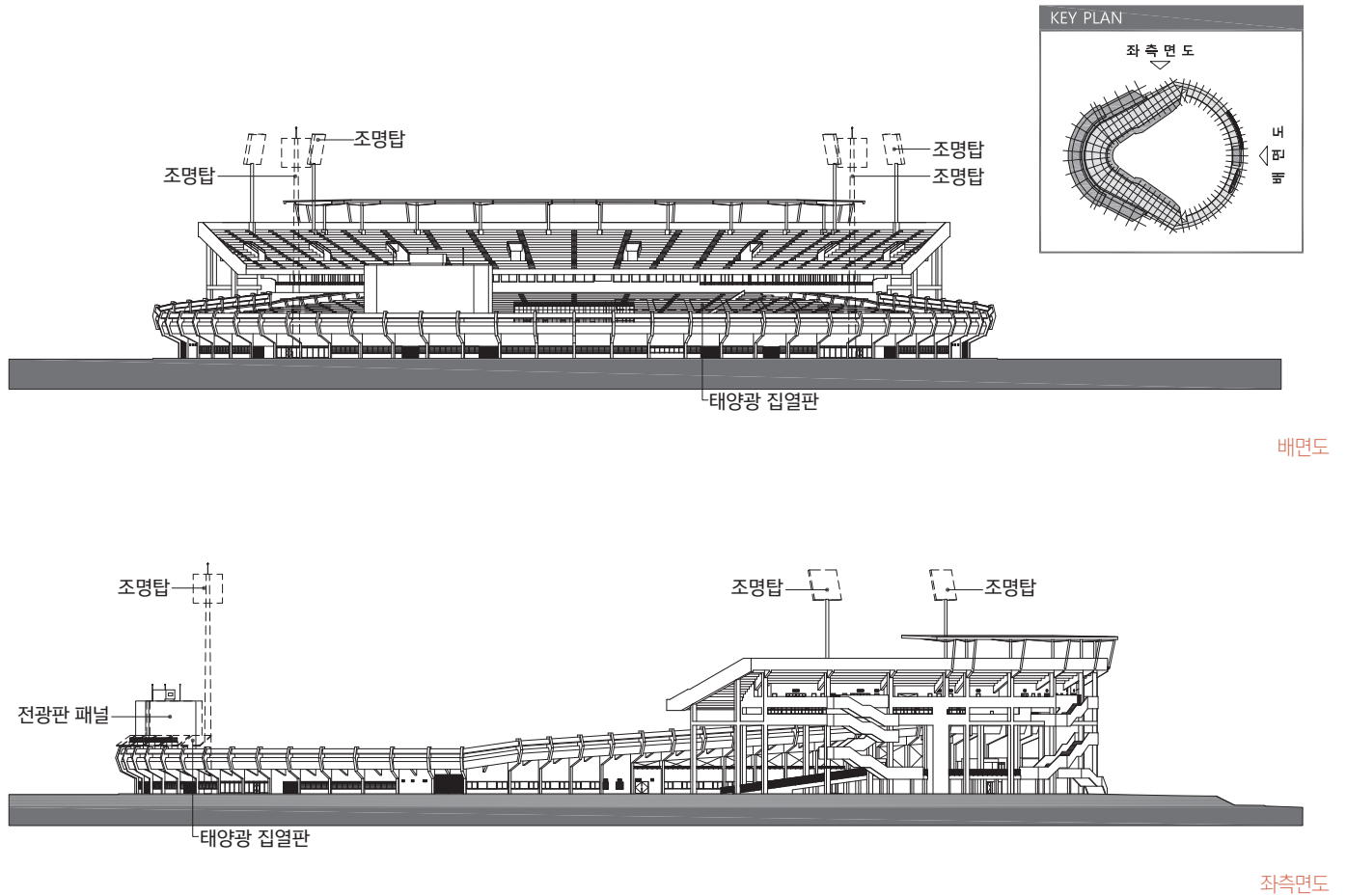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1_매표소 2_매점 3_식당 4_KT스포츠사무실
5_볼펜 6_타격연습실 7_체력단련실 8_선수락카실



스탠드 평면도





수원 KT 위즈파크는 기존의 노후된 수원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10구단과 함께 재탄생된 구장이다. 기존 시설인 1층은 리모델링을 통해 선수와 경기운영시설로 전면 재구성하고 2층은 관람객을 위한 쾌적한 메인 콘코스로 재정비 하였다.

수원 KT 위즈파크는 선호도가 높은 100% 내야 증축을 통해 최상의 경기관람이 가능하고 스카й박스, 파티플로어, 외야의 잔디석 및 펍 등의 다양한 관람석을 도입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야구장을 완성했다.

전 좌석, 50cm 이상의 접이식 관람석을 적용해 좌석을 고급화 하였고, 다이나믹한 경기관람이 가능한 익사이팅석을 추가로 설치해 관람환경에 품격을 더했다. 장애인석은 2층 메인콘코스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토록 1,3루측에 약 100석 규모로 계획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성을 확보했다.

지상 3층에는 경기운영시설을 중앙 배치하여 야구장 조망권 확보 및 원활한 경기운영이 가능토록 했으며, 독립된 스카й박스 및 VIP실을 계획해 일반 관람객들과의 동선을 분리했다. 또한, 지상 4층에는 서브 콘코스를 계획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외야 관람석은 잔디 스탠드와 나무로 된 데크 스탠드, 먹거리를 즐기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펍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로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석으로 계획하여 새로운 관람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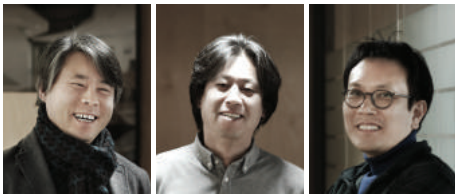
수원야구장이 천만관중의 희망을 담아 새로운 10구단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갓집

Samga Home



설계자 | 우대성_KIRA / 조성기, 김형중

(주)건축사무소 오퍼스

건축을 통한 상상력으로 어울림(consonance)을 만들어가는 오퍼스(op'us)는 이름의 의미처럼 주어진 프로젝트마다 사람과 장소에 대한 특별한 생각과 마음이 담길 일한다. 1998년 설립 이후 3명 건축사(우대성, 조성기, 김형중)의 '지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인테리어 회사인 디자인 모노숨(monosome)을 설립하여 건축, 인테리어, 리노베이션 등의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1999년 '천년의 문' 설계경기에 당선, 주목받기 시작하여 중동교회, 예원교회, 가회동성당 등 종교시설과 수곡마을, 판교주택시리즈, ID하우스, 청담동 이니그마빌, 삼부르네상스 오피스텔, 천호동 주상복합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복합(주거)시설을 설계하고 있다. 또한 엘로드힐즈, 마리아병원, 배상면주가 느린마을 양조장, 가마 광주요 등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근래에는 코오롱 컬처 스테이션, 은평의마을, 마리아센터, 새중앙교회 등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2014), 서울시건축상 최우수상, 시민공감건축상(2014), 한국건축가협회상(2014), 대한민국한옥공모전 올해의한옥상(2014), 부산다운건축상 금상(2014), 한국농촌건축대전 본상(2014), 서울시건축상 우수상(2012), 한국적 생활문화공간(2012), KOSID 골든스케일 어워드(2008, 2009) 등을 수상하였다.





건축주 | (재)마리아수녀회

감리자 | (주)건축사사무소 오퍼스

대지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40-3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88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72.14㎡

연면적(Gross Floor Area) | 272.1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0.64%

용적률(Floor Area Ratio) | 30.64%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스테코, 징크, 지정목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11 ~ 2013.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6 ~ 2014. 03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 설계팀 : 양군수, 김종도, 윤종원, 이상대, 김창선, 최은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토담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 기계전기분야 : (주)한길엔지니어링

Client : The Sisters of Mary

Architect : Woo, Daeseung / Cho, Seongki / Kim, Hyoungjong

Project Team : Yang, Kunsu / Kim, Jongdo / Lee, Samgdæ /

Kim, Changsun / Choi, Eunrym

Location : 43-3, Yangjeon-ri, Samga-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Todam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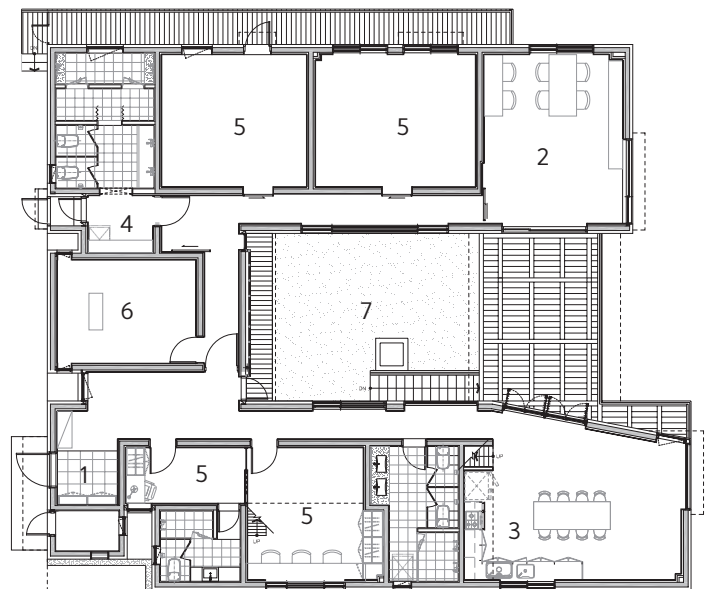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 : Hangil engineering CO. Ltd.

Electrical Engineer : Sejin

Fire Engineer : Ha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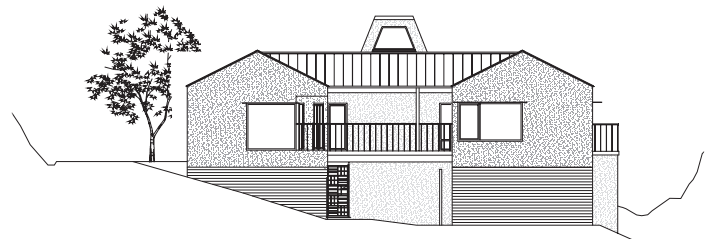
Landscape : CnK

Finishing : stucco, zinc, 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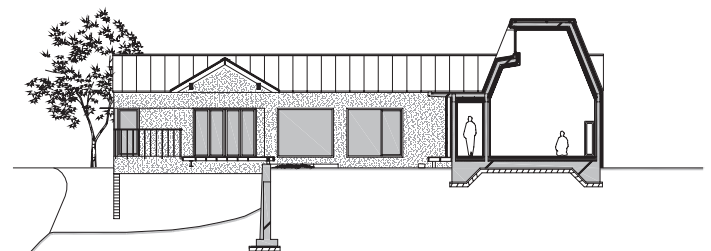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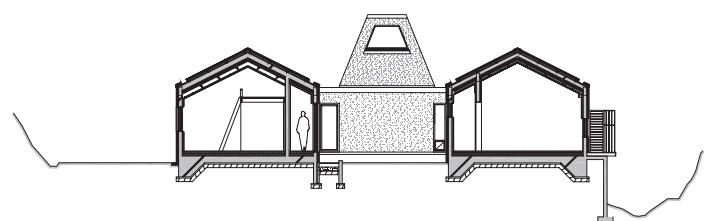
1_출입구 2_거실 3_주방 4_다용도실 5_침실 6_기도실 7_안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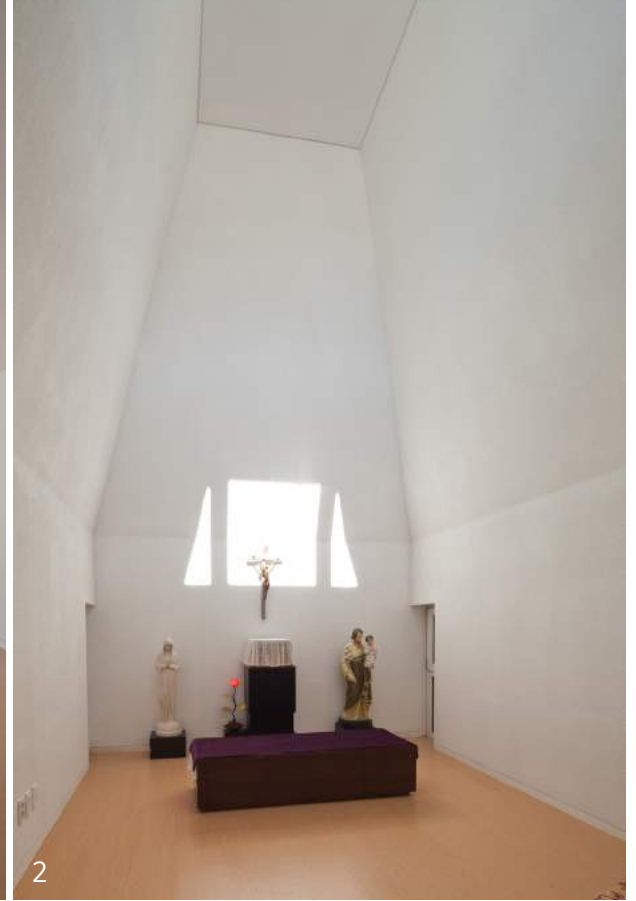
입면도



단면도 1



단면도 2



눈이 가득 내린 겨울 저녁. 터덜터덜 중학생 몇 명이 개울길을 걸어온다. 버스 주차장에서 족히 30분은 걸리는 길이다. 아침에 부산에서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는 날이 저물 무렵에야 이곳에 도착했다. 기다리는 수녀님은 대청에서 목이 빠진다. 화, 분노, 외로움, 싸움... 마음의 큰 상처가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단체로 생활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일상은 큰 어려움이다. 개성 넘치고 에너지 가득한 특출내기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아이 한 두 명을 키우는 가정집에서도 전전긍긍인데 600명이 넘는 단체에서 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집에서처럼 한 명 한 명 돌볼 수 없으니 떨어져 지내게 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는다. 그곳이 합천 삼가면이다. 수녀원에도 아동양육의 일선에서 물러난 할머니들이 많다. 70을 훌쩍 넘겼다. 50년간 달력의 공휴일도 안 식년도 수도자에게는 쉼과는 무관하다. 빨간 날이라고 아이들은 먹지 않거나 일상을 멈추지 않는다. 그걸 평생의 소임으로 받들며 한국에서만 18,000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생활해 왔지만 이젠 어렵다. 육체적으로도 나이의 간극도 너무 멀다. 절대적 가난과 청소년 양육 외에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늘 뒷전이었으니 건강에

도 적신호가 온다. 이 집은 이들을 위한 작은 수녀원이다. 이렇게 사고뭉치 아이와 노수녀님의 동거하는 집이 생겼다. 5시 기상과 기도, 육체노동의 일상은 이곳에서도 계속된다. 아이들 돌봄은 농사로 바뀐다. 휴대폰은 안 터지고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도 없다. 아이들도 딱히 할 일이 없다. 자연스레 거든다. 할머니 수녀들에게 든든한 조력자다. 그걸 느낀다. 일주일간 아이는 사랑을 한껏 받고 간다. 마당을 중심으로 한쪽 날개는 아이들 방. 반대쪽은 수녀 방을 뒤편엔 함께 기도하는 기도 방, 앞엔 텃밭과 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누마루가 있다. 오래전 지어진 뒤쪽 창고는 1층을 터서 바람길을 내고, 발 끝자락엔 오두막을 두었다. 수녀 방에 딸린 마루는 개울을 타고 올라온 뽕나무와 장아찌 장독이 가득 있다. 함께 가꾼 양파와 배추는 부산 양육시설의 김장밀천이고, 매실 장아찌는 큰 밑반찬으로 보내진다. 그걸 가져온 아이들의 어깨도 으쓱해진다. 이곳은 이런 삶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집이다. 아이는 떠나고 며칠 뒤 이번엔 서울 꿈나무마을에서 새로운 아이가 온다.

1_ 식당 2_ 기도실 3_ 거실 4_ 주방





1

2



1_안마당 2_배면 전경 3_누마루(테크) 4_진입부 전경



키즈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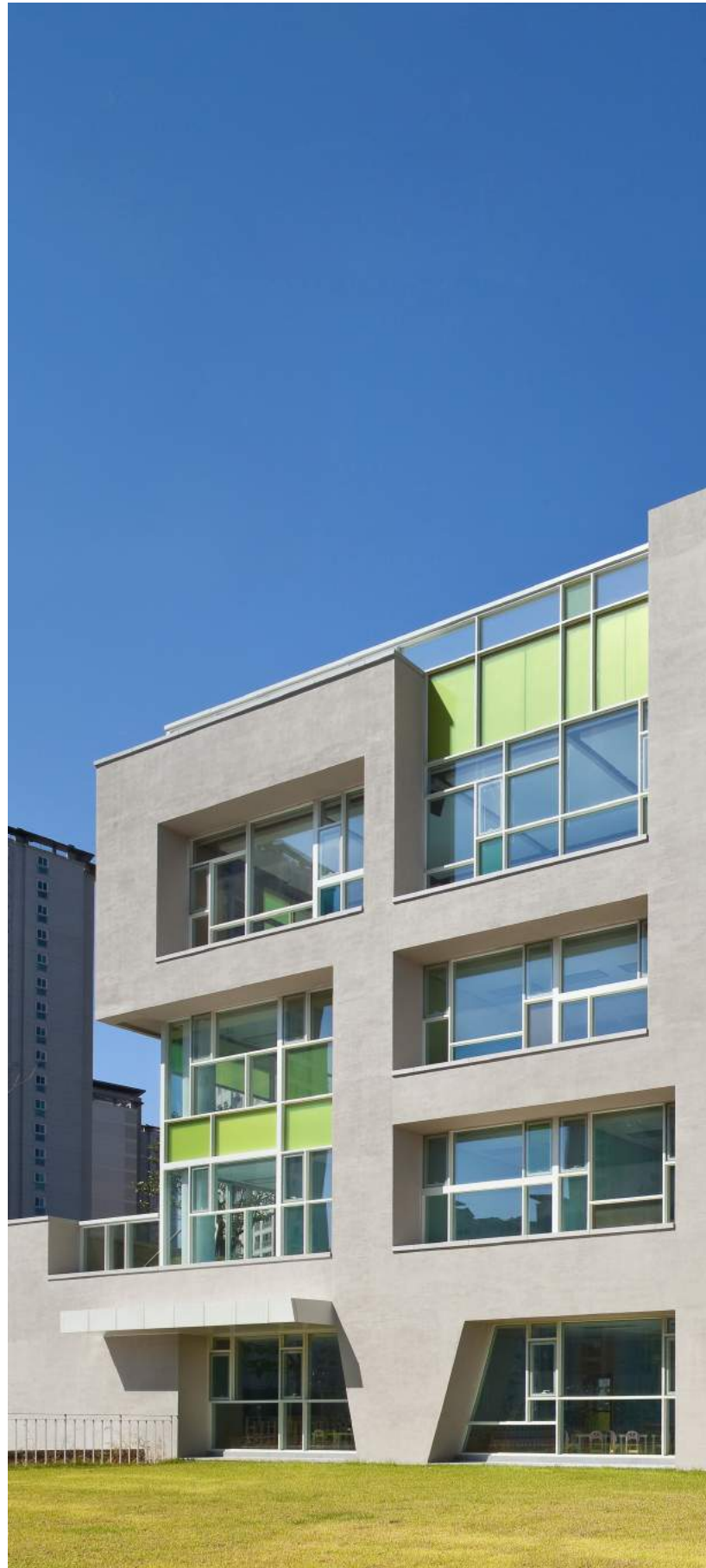
Kids Campus



설계자 | 조민석_KIRA

단아 건축사사무소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서울시 강남구 건축심의위원,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했으며, 현재 단아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활동중이다. 주요작품으로는 논현동 옐로우 프로덕션 사옥, 남대문 고려안경 패션타운, 도곡동 시티파크, 평창군 에덴피아 전원주택단지, 울산시 삼보 빌딩 등이 있다.





건축주 | (유)비케이엘

감리자 | 단아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남화토건(주)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13-13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433㎡

건축면적(Building Area) | 485.48㎡

연면적(Gross Floor Area) | 2583.6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95%

용적률(Floor Area Ratio) | 59.4%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스테코마감, 고흥석버너구이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5. 06 ~ 2013. 09. 09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10. 21 ~ 2014. 07. 12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 설계팀 : 권은보, 최진협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모아구조
 - 기계설비분야 : TED E&C
 - 전기분야 : 조은기술단
 - 소방분야 : 조은기술단

Client : BKL corporation

Architect : Cho, Minsuk

Project Team : Kwon, Eunbo / Choi, Jinhyup

Location : 113-13, Wangbeodeul-ro, Gwangsan-gu, Gwangju-si,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moa Structure

HVAC Engineer : TED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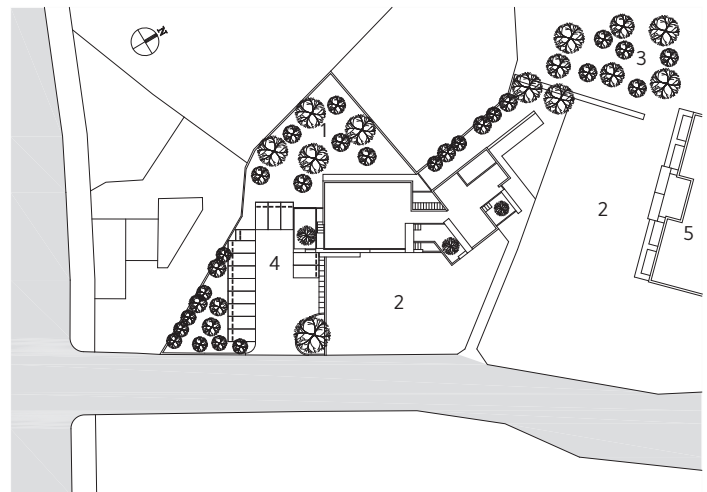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Joeun Engineering

Fire Engineer : JJoeun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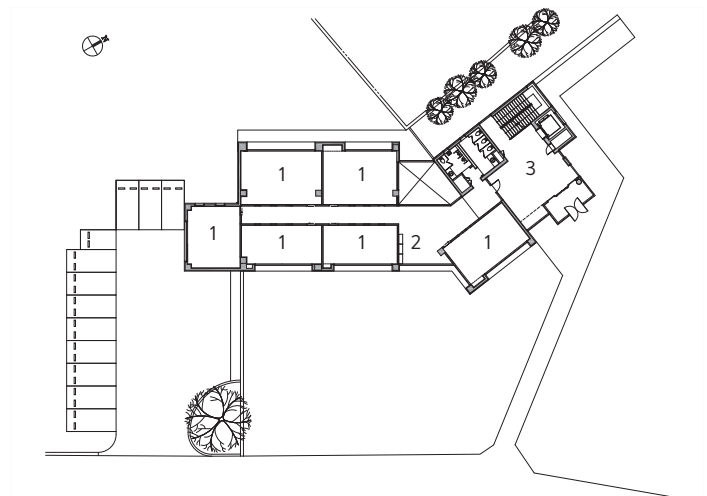
Finishing : Staco, Goheung stone

- 1_ 교실
- 2_ 열린도서관
- 3_ 로비
- 4_ 키즈카페
- 5_ 지하주차장
- 6_ 주방
- 7_ 기계실
- 8_ 전기실
- 9_ 후정
- 10_ 옥외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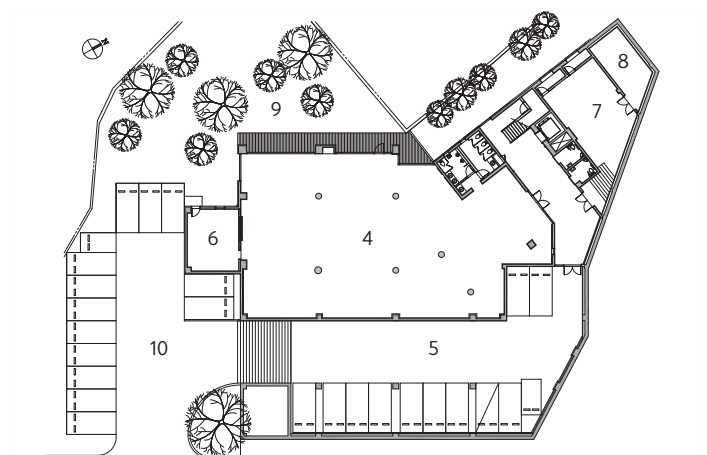
1_ 후정 2_ 잔디마당 3_ 소나무숲 4_ 주차장 5_ 어린이집



배치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서

대지가 위치한 수완동은 광주시의 번두리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신도시로 변모하여 밀도가 높은 주거지역이 되었다. 대지는 고층 아파트단지로 개발된 도시와 논밭이 남아 있는 자연의 경계에 위치한다.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서 건축하는 것은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매개체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공적인 건물의 일부를 비워, 자연을 건물에 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풍경을 위해 일부를 내어 주다

자연은 건물에 싱그러움 투영하고 삭막한 도시에 활력을 준다. 각 층에 공중정원을 만들고 사계절 푸른 아왜나무를 심어 주변의 자연풍경과 경계 짓지 않는 건축이 되고자 했다. 자신의 일부를 내어준 그 빈곳은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전이공간이 되며, 건축적 산책을 통한 감성자극으로 차가운 건축물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심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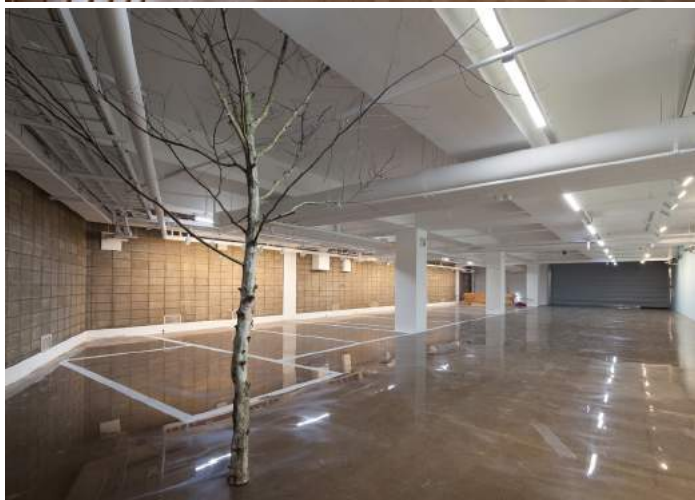
소나무 숲과 기존지형을 활용

건물의 후면에 있는 울창한 소나무 숲의 경치를 끌어 들인다. 소나무 숲은 도로측에서 보면 본 건물과 인접한 어린이집 중간에 위치하는데 그 건물사이를 텅 빈 잔디밭으로 계획하여 도로에서 소나무

숲이 잘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진입하지 않고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비스듬히 진입토록 계획함은 자연을 향한 열린 시선을 건축에 담고자 함이다. 또한 1개층 높이의 고저차가 있는 기존지형을 최대한 살려 지하층 키즈카페의 환경을 개선하였다. 키즈카페 앞에는 후정을 계획하여 소나무를 군식하였는데 인근 소나무숲과 연속되는 자연경관을 도시에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소나무의 기상을 느끼게 해주자는 건축주의 바람에 의함이다.

놀이, 공부, 모험, 성장

본 건물은 키즈카페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시설이다. 지하층에는 키즈카페, 지상층에는 어학, 미술, 음악, 무용교실을 계획하였다. 아이들이 공부를 놀이처럼, 놀이를 공부처럼 하며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교육시설을 원하는 건축주의 바람과 다양한 모험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설계자의 희망이 만나 그 접점을 찾은 것이 본 건물의 공간구성이 되었다. 키즈카페는 요즘의 놀이, 요식업 중심의 공간구성을 벗어나 모험과 부모와의 소통을 지향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입체적인 공간에서 책을 가지고 놀고, 집속의 집에서의 역할놀이, 정글에서 탐험, 암벽타기, 기차타고 여행가기, 소나무 숲에서 술래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한걸음씩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Hwaseong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Handicapped person

발주자 : 화성도시공사

설계자 : 한상목, 노종철_KIRA | (주)에스디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박성환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설계팀 : (주)에스디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 박성호, 김승원, 이호엽, 박진용, 김인영, 이수빈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 이승규, 김경호, 송현민, 신나영, 박경민, 유지수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220-20번지 일원

대지면적 8,030.34㎡

건축면적 4,096.49㎡

연 면 적 12,263.38㎡

건 폐 율 51.01%

용 적 률 101.19%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마 감

- 외부 : 금속판넬, 티타늄 아연판넬, 목재루버, 로이복층유리

- 내부 : 바닥 - 화강석고온마감, 데코타일(논슬립) 등

벽 - 화강석물갈기, 친환경수성페인트 등

천장 - 친환경수성페인트, 흡음천장재 등

STEP

행복한 삶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

prologue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그 첫걸음을 곁에서 함께 이끌어주며, 한 걸음 한 걸음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만들고 싶었다. 그곳은 닫고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며, 사회를 향해 자신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어느 곳보다 안전하며, 누구나 쉽게 찾아와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이루어내는 사회통합의 장을 향한 화성시 장애인 복지관의 첫발을 지금 내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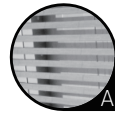
STEP

Safe. 안전 최우선의 건축계획 : 자연스러운 상호관찰 및 소통이 가능한 내·외부 공간을 계획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보행형태 및 속도를 고려한 피난 동선 및 세이프 존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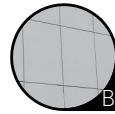
Total. 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계획 :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복지시설로의 계획을 도모한다.

Easy. 접근과 이용이 쉬운 공간계획 : 경사진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접근로를 계획하고, 중정을 통한 순환형 동선과 다양한 프로그램간의 연계를 통해 편하고 쉬운 사용자 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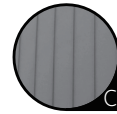
Practical.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계획 :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평면구성과 유지 및 관리의 효율을 고려한 시스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건물 내·외부공간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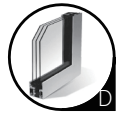
목재루버



금속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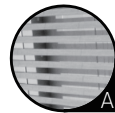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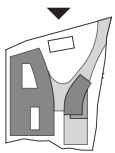
티타늄아연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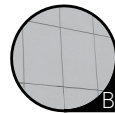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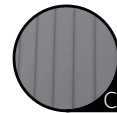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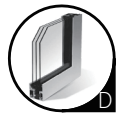
목재루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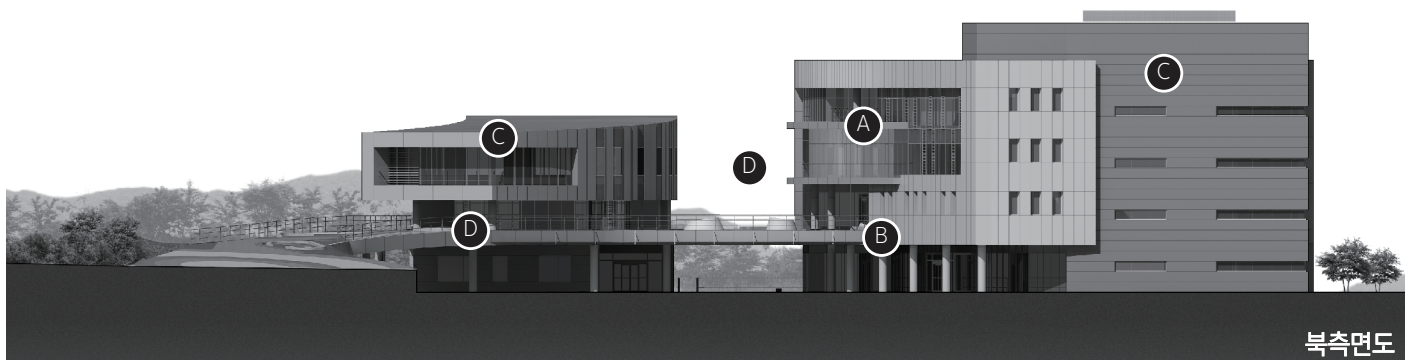
금속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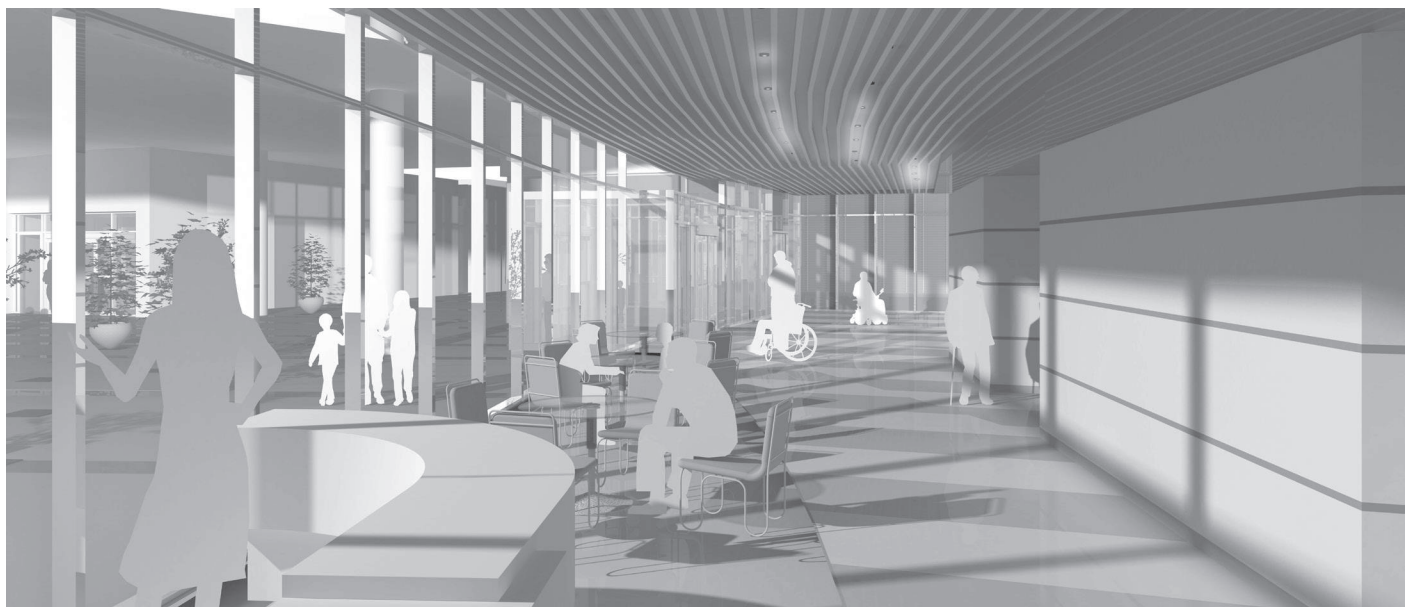
티타늄아연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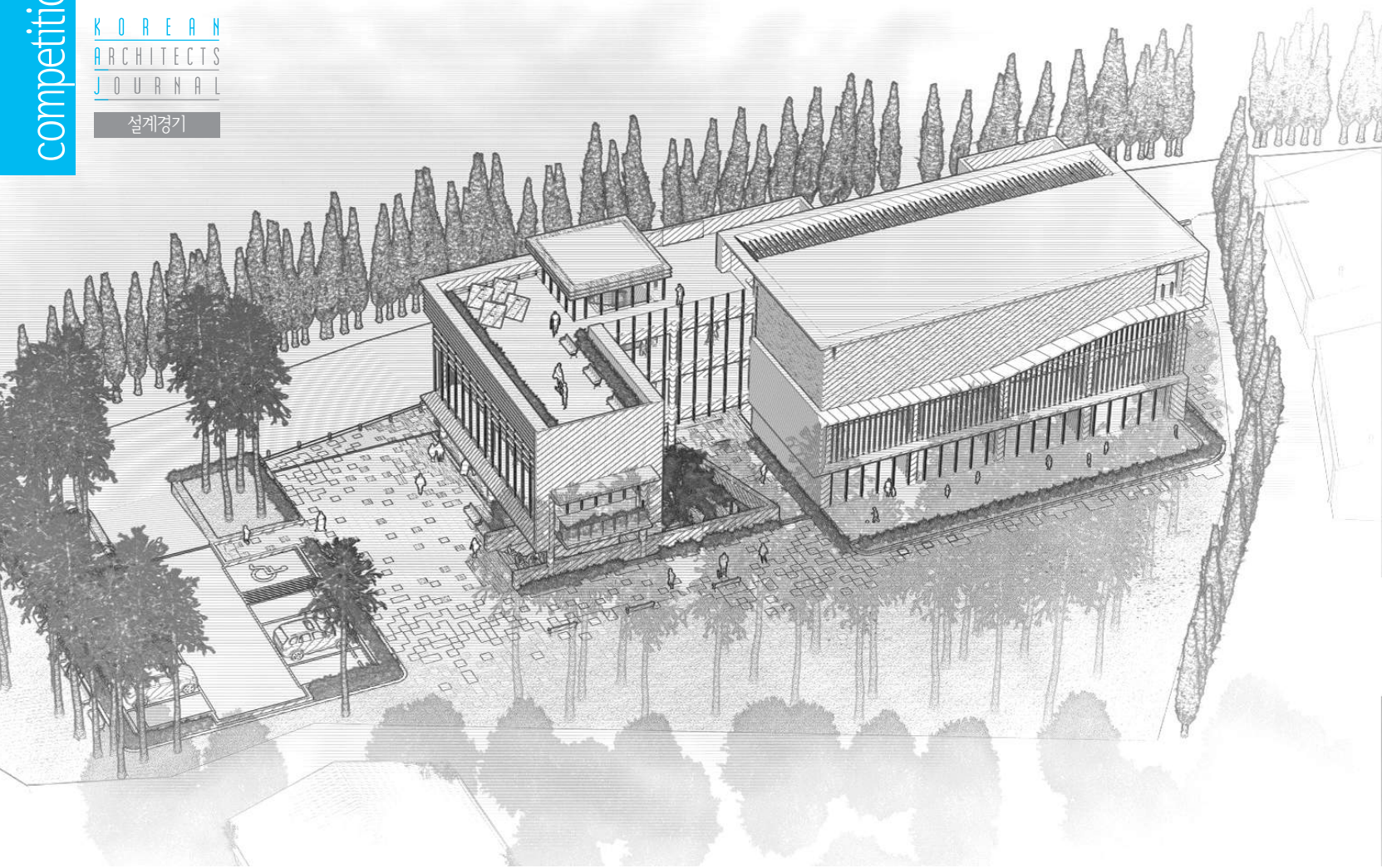


로이복층유리



북측면도





제주 근로자 종합복지관

Jeju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Center

발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계자 : 선은수, 고경임_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강승종_KIRA | (주)선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우준, 허동호, 김대희, 안재정, 문성영, 이충은, 여지예,

이제희, 오지태, 변정현, 박선욱, 장형운, 채지연, 강유리,

황선영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

대지면적 3,769㎡

건축면적 699,46㎡

연 면 적 2,598,60㎡

건 폐 율 19.56%

용 적 륜 52.47%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마 감

- 외부 : 로이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합성데크목재

- 내부 : 천연페인트, 에폭시코팅

1. 기본계획

소나무 숲을 최대한 보존하며, 주변 자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자연과 건축이 서로 공생하는 공간을 계획했다.

2. 배치계획

기존 자연과 산책로 등 내·외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결 동선을 가지며, 모든 면으로 숲과 한라산 및 다양한 경관을 조망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삼나무 숲과 소나무 숲 지대의 수직적인 느낌과 소통하며, 인지성을 극대화시키는 수평적인 느낌을 조화롭게 엮이도록 계획했다.

3. 평면계획

자연으로 열린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매스의 비움을 통해 사잇공간이 형성되고, 사면으로 다양한 시야를 확보하며, 내부 중정을 통하여 자연과의 연계성을 갖는 쾌적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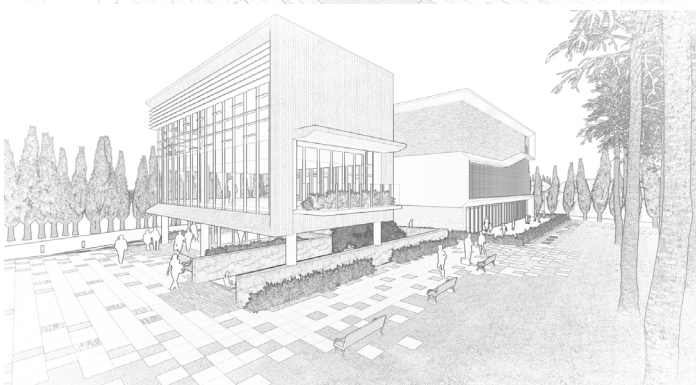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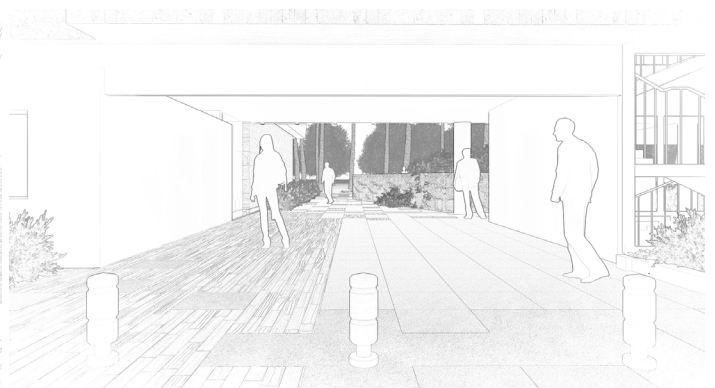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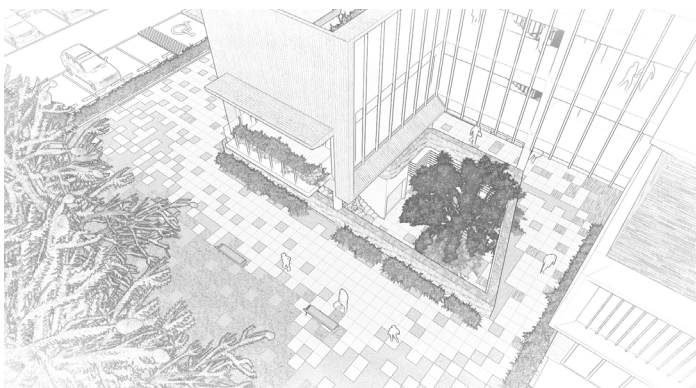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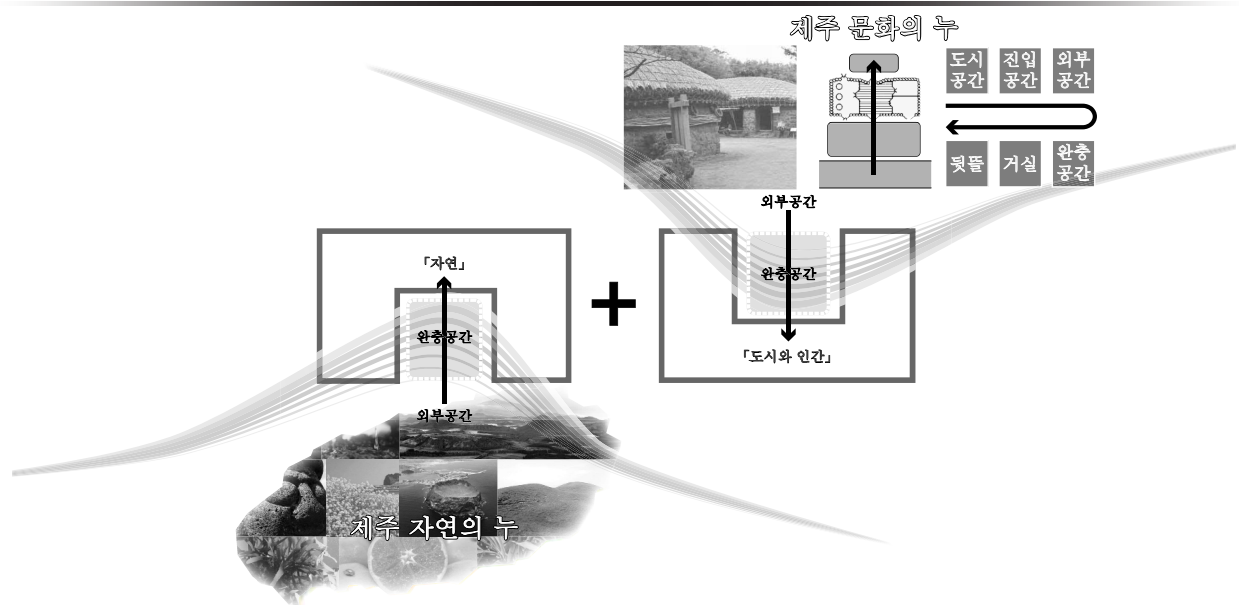
4. 입면계획

기능을 분리하고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투영하여 계획하였으며, 외부환경을 투사한 입면 계획으로 상징성을 강화시키고, 내부환경의 최적화를 위한 패시브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

5. 단면계획

기존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위해 매스를 틀어 다양한 외부공간을 형성하며 주변 소나무 숲과의 관계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지형의 흐름에 순응한 매스를 통해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물어 낼 수 있도록 계획했다.

누 (너울)





전주봉곡초등학교

Jeonju Bongkok Elementary School

발주자 : 전라북도 교육청

설계자 : 이길환_KIRA | (주)길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설형진, 김대진, 김영혁, 선태훈, 이영주, 정세영

대지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14-5번지

주요용도 교육시설

대지면적 9,028.10㎡

건축면적 3,188.29㎡

연 면 적 8,226.57㎡ (-0.64%)

건 폐 율 35.32%

용 적 률 88.80%

규 모 지하 1층 / 지상 4층

마 감 외부 - 점토벽돌 치장쌓기, 노출콘크리트, 목재판넬,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판넬, 지붕판넬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배치

- 주거지역과 공원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
- 다양한 학습과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외부공간과 내부 프로그램간의 연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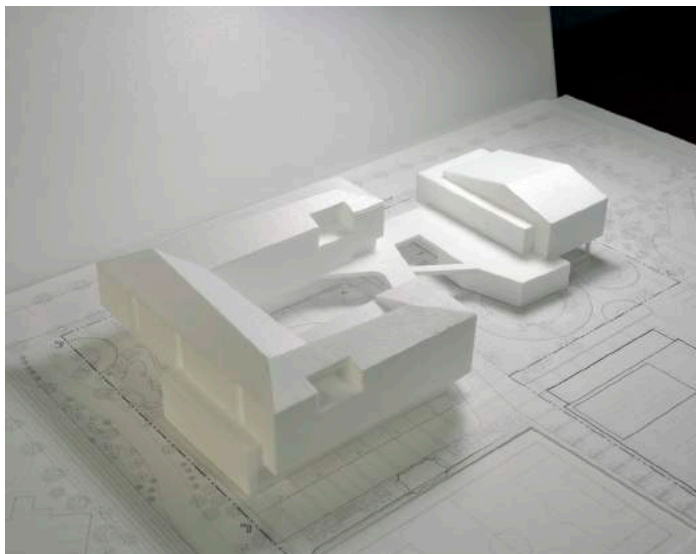
기능적이며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교사동 일조 확보를 위한 남향배치 및 열린 조망
- 집약적 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이동동선계획
- 용도별 조닝에 효율적인 배치

주변과 연계한 감성학습공간

- 테마별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 자연속의 감성교육공간을 구성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진정한 감성 교육의 장을 마련

봉곡초등학교는 자연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생동감 넘치는 교정설계를 목표로 이바디 근린공원과 물빛채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주거벨트의 입구에 있다. 학교가 아이들 교육과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체육, 평생학습, 여가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만남과, 교류, 휴식의 장으로 즐겁고 환경이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했다.



serial

글. 김홍기 | Kim, Hong-ki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Architectural Odyssey : The Abys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든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재 목차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성미술 운동의 본질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4. 루이스 칸과 김벨미술관/ 빛과 침묵, 건축의 본질
5. 요셉 호프만과 스토클렛주택/ 총체예술의 원류
6. 루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현대건축의 실험실
7.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디아스포라의 유산
8. 호세 루이스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건축의 낭만성
9. 반 도스버그와 미스 / 러시아 댄서에 매혹된 근대
10.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테크놀로지 미학의 배후
11. 인젤 홈브로이히와 랑엔미술관/ 폐허 속에 꽃핀 예술의 공동체
12.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색채와 음악, 공감각의 배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장과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연맹(AIDIA) 회장을 역임했고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로빈슨 크루소가 건축가라고> <건축조형디자인론> 등이 있으며, 건축문화예술에 관한 강연 및 연재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축오디세이 1 _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 채플



그림 1) 휴스턴 로스코 채플 전경



그림 3) 토니상을 받은 연극 '레드'의 마크 로스코, 2010년 뉴욕공연
그림 4) 뉴욕 작업실의 마크 로스코, 1964
그림 5) 명상의 공간 로스코채플 내부

로스코의 작업실 내부를 재현한 것으로, 원을 넘긴 로스코는 젊은 조수 켄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네가 니체를 알아
비극의 탄생을 읽어봤어
용을 알아
플라톤을 아느냐구
예술은 정신적인거야
붓질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건 10퍼센트밖에 안 돼
우린 큐비즘을 짓밟아 숨통을 끊어버렸어
자식은 아버지를 몰아내야 해
존경하지만 살해해야 하는 거야
앤디 와홀, 리히텐슈타인
그들의 그림엔 생명이 없어
레드는 생명이야
그 속에는 숨결이 있어
이제 뭐가 보이냐
뭐가 솟아오르지 않아
뭐가 꿈틀거리지 않아
레드를 보란말야
레드



그림 2) 마크 로스코의 회화 14점이 걸려있는 로스코 채플 내부

2015년 5월, 문화예술계는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열기로 뜨겁다. 한가람 미술관에서 3개월 동안 개최되는 '마크 로스코 특별전'과 함께 로스코의 작품 세계를 다룬 연극 '레드'(Red)>가 객석을 달구고 있다. 2010년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레드'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타임머신을 써낸 극작가 존 로건(John Logan)의 손에서 탄생돼 더욱 주목을 받아왔던 터였다. 붉은 색면의 거대한 캔버스에 세워진 무대 주변에는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된 소도구들이 널브러져 있다. 맨해튼 이스트 69번가에 위치했던 마크



그림 6) 토마스 제퍼슨이 1819년 설계한 버지니아 대학

2인극 레드는 이렇듯 팽팽한 긴장의 문답법으로 한 예술가의 작품세계를 농밀하게 풀어 헤친다. 장황하게 로스코의 전 생애를 훑지 않는다. 67세에 팔목을 그어 자살한 화가의 비극적 말년에 초점을 맞춘 듯 보이나, 죽기 10년 전 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급 레스토랑에 걸릴 벽화를 의뢰받고 40여점의 연작을 완성했다가 돌연 계약을 파기했던 ‘시그렘 벽화사건’이 시나리오의 중심을 이룬다. 로스코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단초는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예배당’ 로스코 채플 속에 있다. 달라이 라마와 넬슨 만델라가 다녀간 채플 내부에는 십자가나 어떤 성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교도 신부도 볼 수 없다. 오직 로스코의 대형 그림 열네 점만이 팔각형 내부공간에 걸려 있어, 개인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1년 내내 개방된 채플 내부에서 사람들은 로스코가 남긴 어두운 색면을 응시하면서 침묵과 명상과 빠진다. 형태도 없고 주제도 없으며 아무런 조형을 포함하지 않은 신비로운 색면 추상의 그림들은 미세하게 조절된 자연 채광과 합일되어 숭고함과 선의 경지에 젖어들게 만든다.

연간 8만 명이나 다녀가는 로스코 채플의 설계는 전후 미국건축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필립 존슨이 맡았다. 화가 마크 로스코와의 협업은 프로세스 자체부터 독특했다. 건축사뿐만 아니라 화가도 건축컨셉을 갖고 있었다. 화가와 건축사는 시작 단계부터 머리를 맞대야만 했다. 타협을 모른 채 자신의 작품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한 마크 로스코와 미국현대건축의 대부로 자리 잡은 필립 존슨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이들을 후원한 도미니크 드 메닐이 엮어내는 위대한 탄생의 순간을 회고해 보자.

필립 존슨과 마크 로스코의 예술적 결합

석유재벌 Schlumberger(슐럼버거)사의 상속녀 도미니크 드 메닐이 파리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1940년대 초반, 텍사스 남동부

휴스턴은 빈 캔버스와도 같았다.¹⁾ 공장과 주택, 그리고 일부 공공 건물 이외에 이렇다 할 교육시설과 종교시설, 문화예술시설이 없었다.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황폐한 이 도시를 위해 메닐은 문화예술 후원 역할을 자임한다. 급격히 변모하는 이 지역의 정신적 상징이 될 만한 채플을 건립하고 미술관과 학교를 세워나간 도미니크 드 메닐, 그녀의 활동무대는 그가 학장으로 있던 성토마스 대학 미술학부였다. 1951년에야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 대학은 학생이 늘어나자 강의동과 캠퍼스의 중심이 되는 아카데미 몰(Academic Mall)을 설계할 건축사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 재정위원을 책임진 도미니크 드 메닐은 네 명의 건축사를 추천했고 대학 건설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필립 존슨을 선정했다. 토마스 제퍼슨이 설계한 버지니아 대학 아카데미 몰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필립 존슨의 계획안은 미스의 건축어휘를 차용한 것이었다. 경쾌한 비례, 철골부재가 표출하는 고전적 질서, 곳곳에 미시언(Miesian)적인 요소로 가득했다. 미스와 존슨, 두 사람은 시그렘 빌딩 설계 단계에서 의기투합한다.

캐나다 주류회사 시그렘은 1954년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사옥을 짓기로 결정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러크맨과 페레이라(Luckman & Pereira) 건축사사무소에 기본설계를 맡겼다. 시그렘 회장의 딸 필리스 램버트(Phyllis Lambert)는 그들의 설계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 기업이미지를 표상할 랜드마크 건물을 기대했던 터였기에 실망감은 컸다. 램버트는 뉴욕현대미술관(MoMA) 관장을 역임한 미술계의 거목 알프레드 바(Alfred Barr)를 만나 대안을 찾게 된다. 알프레드 바는 필립 존슨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고, 존슨은 새로운 건축사로 미스를 추천한다. 고층빌딩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낸 시그렘 빌딩은 훗날 필리스 램버트에게 황금사자상을 안긴다.

2014년 제14회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평생공로상 부문 황금사자상은 이례적으로 건축사가 아닌 건축후원자에게 돌아갔다. 수상

1) 미술 후원자 도미니크 드 메닐(본명 도미니크 슐럼버거)은 1908년 콘라드 슐럼버거의 둘째 딸로 출생했다. 전기저항을 측정하는 기기를 만들어 슐럼버거사의 기반을 구축한 콘라드 슐럼버거는 텍사스 지역 석유재굴사업에 나서면서 슐럼버거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다. 소르본느 대학에서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후 1931년 은행가인 잔 드 메닐과 만나 결혼한 도미니크 메닐은 히틀러가 파리를 침공하는 1940년 남편과 함께 슐럼버거 미국 본사가 위치한 휴스턴으로 이주하여 컬렉터이자 문화예술 후원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림 7) 성토마스 대학 아카데미 몰, 필립 존슨 설계

자는 87세의 필리스 램버트였다. 비엔날레의 총감독이었던 램 쿨 하스는 수상 이유를 세계건축계의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공헌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954년 미스 반데 로에에게 시그렘 빌딩을 맡겨 고층빌딩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낸 점, 뉴욕 포시즌 레스토랑을 마크 로스코에게 맡겨 예술가를 후원했다는 점, 캐나다 건축협회 설립자라는 점 등을 꼽았다. 1955년 찍은 한 장의 흑백 사진 속에서 당시 30대였던 램버트의 열정을 볼 수 있다. 시그렘 빌딩 모형을 배경으로 미스와 존슨, 램버트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속에 새로운 건축을 탄생시키기 위한 진지한 표정이 담겨있다. 미스가 건축계획 전체를 책임진데 비해, 존슨은 출입구 캐노피 디자인과 1층에 들어갈 레스토랑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았다.



그림 8) 시그렘 빌딩 건축 모형사진을 배경으로 대화를 나누는 필립존슨과 미스, 필리스 램버트

시그렘 빌딩이 완성될 무렵 램버트는 시그렘 빌딩 1층 포시즌(Four Seasons) 레스토랑의 벽면을 장식할 회화 선정을 인테리어 설계자인 필립 존슨에게 위임한다. 존슨은 당시 뉴욕 화단에 이름을 떨치던 로스코를 천거했고, 로스코가 3만 5천 달러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은 성사된다. 그로부터 2년 동안 레스토랑 벽면에 설치될 대형 벽화를 제작하는데 진력을 다하던 로스코는 아내와 함께 포시즌 레스토랑에 들러 식사를 하다 상류사회 인

사들의 속물스런 모습에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연극 레드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하는 일이라곤 먹고 짓고 떠들고
포크와 나이프를 부딪치고
말들은 자르고 으르렁대고
근데 거기서,
바로 거기서
내작품들이 내내 살게 될 거 아닌가.
궁금해?
내작품들이 날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자 로스코는 즉시 필립 존슨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파기선언을 한다. “비싼 돈을 내고 우아한 음식을 먹는 놈들에게 내 그림을 보라고 허락 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계약금으로 받은 7천 달러를 돌려주자 마음이 홀가분했다. 스스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자기가 부여한 작품의 순결성을 지키고, 영합을 마다함으로써 화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퍼시즌 벽화 계약파기 사건을 계기로 로스코 작품은 더욱 정신세계로 침잠한다. 말년으로 갈수록 자신의 작품에 비극적 관점을 담는데 진력했다.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내재된 디오니소스적인 정신세계에 몰입했다. 물질보다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다보니 어둠이 빛을 삼키듯, 검정이 레드를 삼키듯 화면은 어두워졌다. 후기 작품에 나타난 어두운 색면, 그곳에 담긴 정신성은 로스코 채플에서 정점을 이룬다.

마크 로스코의 색면, 정신성의 근원

필립 존슨과 도미니크 드 메닐을 감동으로 몰아넣은 로스코 회화의 특질이 무엇일까? 그의 그림이 표출하는 숭고의 미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평가들은 로스코의 그림이 색면 추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을 1940년대 후반으로 잡는다. 이때부터 그의 그림은 초현실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화면을 평평한 색면의 떠



그림 9) 포시즌 레스토랑을 위해 제작된 시그렘 벽화. (계약이 파기된 이후 런던의 테이트모던, 워싱턴 내셔널갤러리, 일본 가와무라 미술관 등에 분산 소장돼 있다. 사진은 9점이 소장된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동관)

로 분할하기 시작한다. 채색법이 독특했다. 물감이 번진 듯 색채가 상호 침투하여 불분명한 경계를 이룬다. 짙은 구름사이로 하늘이 드러나듯 부유하는 색면은 독일 낭만주의 대가 카스파 프리드리히(Caspar Friedrich)가 1809년 그린 ‘바닷가의 수도승’의 암막처럼 펼쳐진 어두운 심연을 떠올리게 한다.

마크 로스코는 1903년 9월 26일 발트 해에 인접한 러시아 영토 드빈스크에서 태어났다. 당시 드빈스크 교외에 살던 유대인들은 항상 학살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 ‘유대인을 죽여 러시아를 구하자’는 슬로건이 횡행했던 시절,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정착한다. 미국에 건너오자마자 겪게 된 아버지의 죽음은 고생의 시작이자 그의 작업 밑바닥에 깔려있는 비극적 서사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뛰어난 성적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예일대학교에 진학해 인문학을 전공한다. 니체의 철학과 고대신화에 심취하지만 장학금 취소로 2년 만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정착한 곳은 뉴욕, 유서 깊은 미술교육기관 아트스튜던츠리그(Art Students League)를 우연이 방문하면서 인생의 전

환점을 맞이한다.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한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림이 내 삶의 전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로스코는 1924년부터 2년간 아트스튜던츠리그의 막스웨버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배운다. 초기 회화 작품들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후양 미로와 키리코, 에른스트 등의 영향을 받아 신화적 분위기가 농밀한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그리다가, 1949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 마티스의 「붉은 작업실」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미술관에 들린다. 전통적인 공간감을 모두 무시한 마티스의 그



그림 10) 카스파 프리드리히, 바닷가의 수도승, 1809,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고독, 허무함이 배어있다.



그림 11) 마크 로스코, Yellow, 1953

림은 색채의 혁명이었다. 색채로 규정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림 자체라는 확신을 줬다. 신화적이고 원시적인 감성을 더 이상 형태를 통해 구현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색 면 하나로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선과 형태가 사라지고 색으로 가득한 그림
색을 통해 영혼의 정신을 선사하는
색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울음을 터트리게 만드는 그림

1950년대 중반, 로스코 작품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많은 미술관과 개인 수집가들이 그의 작품을 사려고 줄을 섰다. 작품을 수집한 고객 명단에는 록펠러 가문의 아들 데이비드 록펠러의 이름도, 휴스턴의 석유갑부이자 예술 후원가 도미니크 드 메닐의 이름도 등장한다. 그의 명성은 로스코가 58세가 되던 해에 확연히 드러났다. 1961년 1월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취임식장에 프란츠 클라인과 함께 초대된다. 그 해 뉴욕현대미술관에서 48점의 작품이 전시된 회고전이 열렸고 전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60년대가 넘어서면서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명성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앤디 와홀, 로이 리이텐슈타인, 톰 웨셀만, 제임스 로젠퀴스트 같은 젊은 작가들이 영국으로부터 팝아트를 수입해 새로운 화풍으로 발전시키면서 팝아트의 인기는 치솟았다. 상대적으로 전후 미국 미술계를 지배해 왔던 추상표현주의와 색면추상은 시들해졌다. 대중들의 눈에 추상표현주의자들의 작품들은 어느 순간 완고하고 거만하며 엘리트적인 미술로 비쳐졌다. 팝아티스트들을 협잡꾼이자 젊은 기회주의자라고 일갈한 로스코의 화풍만큼은 변치 않았다. 1960년대 후반 들어 로스코의 작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짙은 파랑이나 녹색 계열은 좀처럼 쓰지 않고 황혼 무렵처럼 빛나는 적색, 황색 계열을 선호했던 그의 작품은 후기로 갈수록 무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듯 화면은 점점 어두워져 짙은 밤색

이나 어두운 보라색이 지배한다. 로스코는 말년 들어 셰익스피어의 비극뿐만 아니라 모차르트의 음악처럼 보편적이고 가슴에 사무치는 작품을 남기길 원했다. 자신의 그림이 평정심을 준다는 평을 가장 싫어했던 로스코에게 말년의 꿈을 집대성할 프로젝트가 다가왔다. 생애 말년 최고의 성취라고 자평한 로스코 채플이었다.

로스코 채플, 건축과 회화의 정합을 향하여

1965년 로스코는 도미니크 드 메닐로부터 성토마스 대학의 채플을 위한 작품 제작을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메닐은 로스코에서 벽화 연작을 주문하면서 25만 달러를 내놓았다. 로스코는 즉시 뉴욕 맨해튼에 작업실을 빌려 작품 제작에 돌입했다.²⁾ 채플 건축의 설계자로 내정된 필립 존슨은 그해 10월 로스코에게 정방형 평면을 제시한다. 로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이탈리아 여행 때 보았던 비잔틴 양식의 예배당을 떠올리며 팔각형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³⁾ 열점이 넘는 벽화를 작은 채플에 배치할 때, 여덟개의 면을 지닌 팔각형이 사각형보다 훨씬 유연하다는 논리였다. 평면도는 한 달 만에 로스코의 요구대로 팔각형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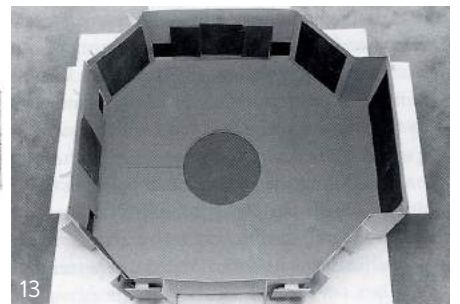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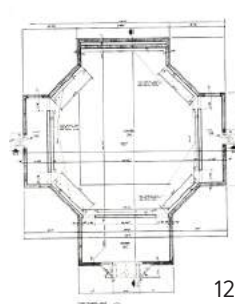


그림 12) 로스코 채플 평면 수정안

그림 13) 로드코 채플 내부모형, 1967

2) 마크 로스코는 1964년부터 채플을 위한 그림 제작에 들어간다. 로스코는 거대한 벽화에 어두운 색조를 택했다. 체력적인 한계를 느낀 탓에 조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면소재의 캔버스를 목재로 된 대형 크기의 틀에 씌웠다. 로스코는 짙은 밤색 유화 물감을 티레핀유를 섞어 희석시켰다. 그의 지휘아래 조수들이 희석시킨 물감을 대형 캔버스 구석구석 칠했다. 세 점의 3면화와 다섯 개의 개별 작품으로 이루어진 14점의 대형그림을 차례로 완성해 나갔다. 이 가운데 절반은 모노크롬으로 되어있다. 1967년 말까지 완성된 작품들은 수장고로 옮겨져 예배당이 완성되는 1971년까지 수장고에 보관되었다.

3) 베니스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로테 성당, 라벤나의 산 비탈레 성당 모두 팔각형 평면으로, 비잔틴 교회는 지방형 바실리카 평면보다는 원 또는 팔각형으로 구성된 중앙집중형 평면을 사용했다.



그림 15) 낮게 수정된 로스코 채플의 정면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은 지붕의 형태와 빛의 해결에서 정점에 달했다. 존슨은 높은 천장고를 지닌 삼각 피라미드형 지붕을 제안했다. 종교건축이 지니는 초월성과 영원성을 상징하기 위해 고딕 건축처럼 높은 천장고를 지닌 지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스코의 생각은 이번에도 달랐다. 스포트라이트로 떨어지는 초점

조명보다는 낮은 천장고에서 오묘하게 분출되는 산란 조명이 회화의 미묘한 색상관계를 전달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수직적 공간감은 그림 자체를 왜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림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낮은 천장고와 중앙 채광창으로 수정되길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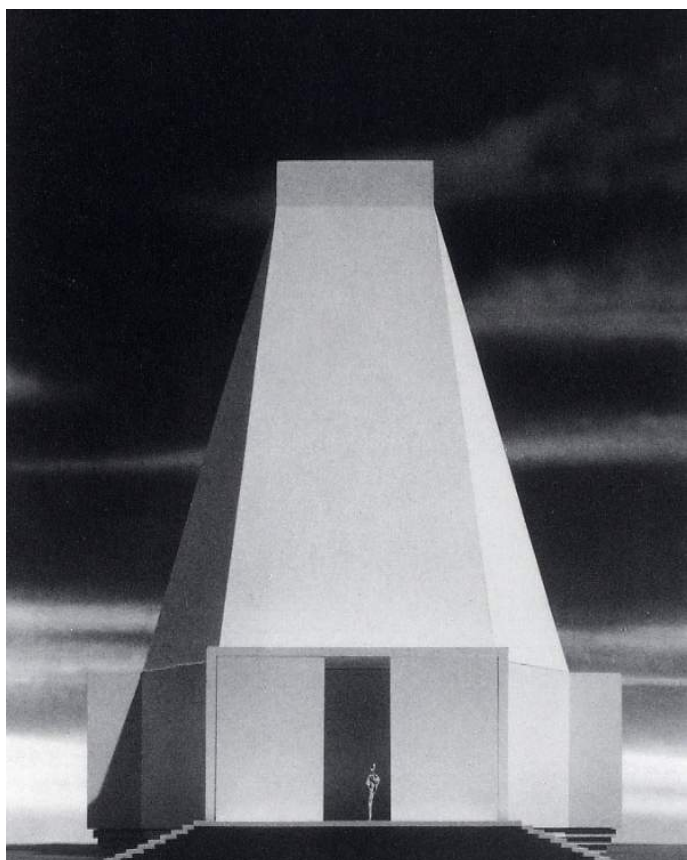


그림 14) 필립 존슨의 초기계획안 모형

마찰이 거듭되자 건립계획은 한동안 중지된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존슨은 결국 채플 계획에서 손을 뗄 것을 결심한다. 설계는 휴스턴의 건축사 하워드 반스톤과 유진 오브리(Howard Barnstone and Eugene Aubry)에게 넘겨졌고, 그들은 설계도와 모형을 들고 뉴욕의 로스코 작업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만 했다. 모든 세부 사항에 로스코의 승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로스코의 요구대로 낮은 천장으로 대체되었고, 벽과 바닥의 색채와 질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였다. 벽은 광택을 없애기 위해 회벽 바탕에 중성적인 색상의 수성페인트로 칠해졌고, 바닥은 푸른색이 감도는 암갈색의 타일이 선정되었다, 거친 질감과 어두운 색상의 마감재를 통해 상당량의 빛을 흡수시킴으로서 청빈함을 추구하는 수도원 내부처럼 어두움에서 표출되는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공간이 조성되었다.

1969년 메닐 부부는 바넷 뉴먼(Barnet Newman)의 조각 부러진 오벨리스크를 구입해 채플이 들어설 부지 앞 연못에 전시했다. 이 조각은 1년 전 암살된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박사를 기리는 기념비였다. 바넷 뉴먼 역시 로스코와 마찬가지로 1970년 생을 마감했다. 1971년 1월 26일에 열린 채플 봉헌식은 초교파적인 행사로 거행됐다. 가톨릭교, 개신교, 그리스정교, 유대교를 비롯해 심지어 불교, 이슬람교의 지도자들까지 봉헌식에 참석했고, 교황청에서도 추기경이 교황 대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로스코 채플 건립을 진행해 온 도미니크 드 메닐은 봉헌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림 16) 로스코 채플 벽화의반입 장면

“진정한 예술작품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감춰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림들이 처음에는 매력적이지 않아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림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코는 가능한 한 자신의 작품이 가슴에 사무치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림들이 아늑하고 초시간적인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추상미술만이 우리를 신성한 세계의 문턱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로스코가 깜깜한 밤과 같은 추상적인 벽화를 그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로스코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집과 용기에 의해서만 화가는 위대해 집니다. 이 곳 채플 안에 걸린 작품들은 로스코의 작품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로스코에 대한 찬사에 이어 펠트만이 작곡한 음악이 연주되었다. 1971년 메닐 재단으로부터 로스코를 기념하는 작품을 의뢰받은 펠트만이 로스코에게 헌정한 곡명은 <The Rothko Chapel>이었다. 도미니크 드 메닐은 로스코 채플이 완공된 이후에도 로스코의 회화작품을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강렬한 일광이 회화의 신비로운 효과를 계속 방해하였기에 빛을 고르게 산란시키는 백색 스크린을 1974년에 설치하였고, 1976년에는 채광창 아래 빛을 걸러주는 방지막을 설치하였다. 이 같은 장치에 의해 작품의 위쪽은 더 강하고 아래는 어둡게 비춤으로써 어두움과 밝음의 미묘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로스코가 추구한 빛과 공간과 회화의 절묘한 조합이 그가 꿈꾸던 대로 완벽히 구현되기에 이른다.



그림 17) 바넷 뉴먼의 조각 <부러진 오벨리스크>

로스코 채플 방문하기

석유산업으로 부를 축적한 텍사스 제1의 도시 휴스턴 다운타운에는 대규모 미술관 거리가 발달되어 있다. 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유테인 홀로커스트 박물관과 어린이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한 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이 일대를 뮤지엄 디스트릭트(Museum District)로 부른다. 휴스턴의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와 허만 공원(Hermann Park)을 끼고 발달한 뮤지엄 디스트릭트. 그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몬트로세 마을로 발길을 돌리면 도미니크 드 메닐이 생전에 조성한 미술관 단지가 등장한다. 도미니크 드 메닐이 후원했던 성토마스 대학 건물을 가로질러 걸어가면 로스코 채플과 부러진 오벨리스크의 모습이 보이고, 곧 이어 미술관 지구가 나타난다. 도미니크 드 메닐이 세운 크고 작은 건물들은 대학 캠퍼스처럼 안온한 마을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메닐 캠퍼스(Menil Campus)라고 부른다.

미국 서부에 게티 미술관을 세운 폴 게티가 있고, 동부에는 솔로몬 구겐하임과 모마를 설립한 록펠러 가문이 있었던 것처럼, 남부 텍사스 주에도 도미니크 드 메닐이라는 걸출한 예술후원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메닐 캠퍼스에서 체득하게 된다.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한 40여 년 동안 문화예술 후원은 광범위했다. 휴스턴 예술협회와 현대미술관을 후원했고, 라이스 대학과 성토마스 대학의 발전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1980년대 이후 메닐의 업적은 미술관 신축과 작가 후원으로 결실을 맺는다. 1만여 점이 넘는 소장품을 전시하고 보존하기 위해 1987년 상설 미술관인 메닐컬렉션(Menil Collection)을 세운 것을 필두로, 비잔틴 프레스코화 미술관(Byzantine Fresco Chapel Museum)과 사이 톰블리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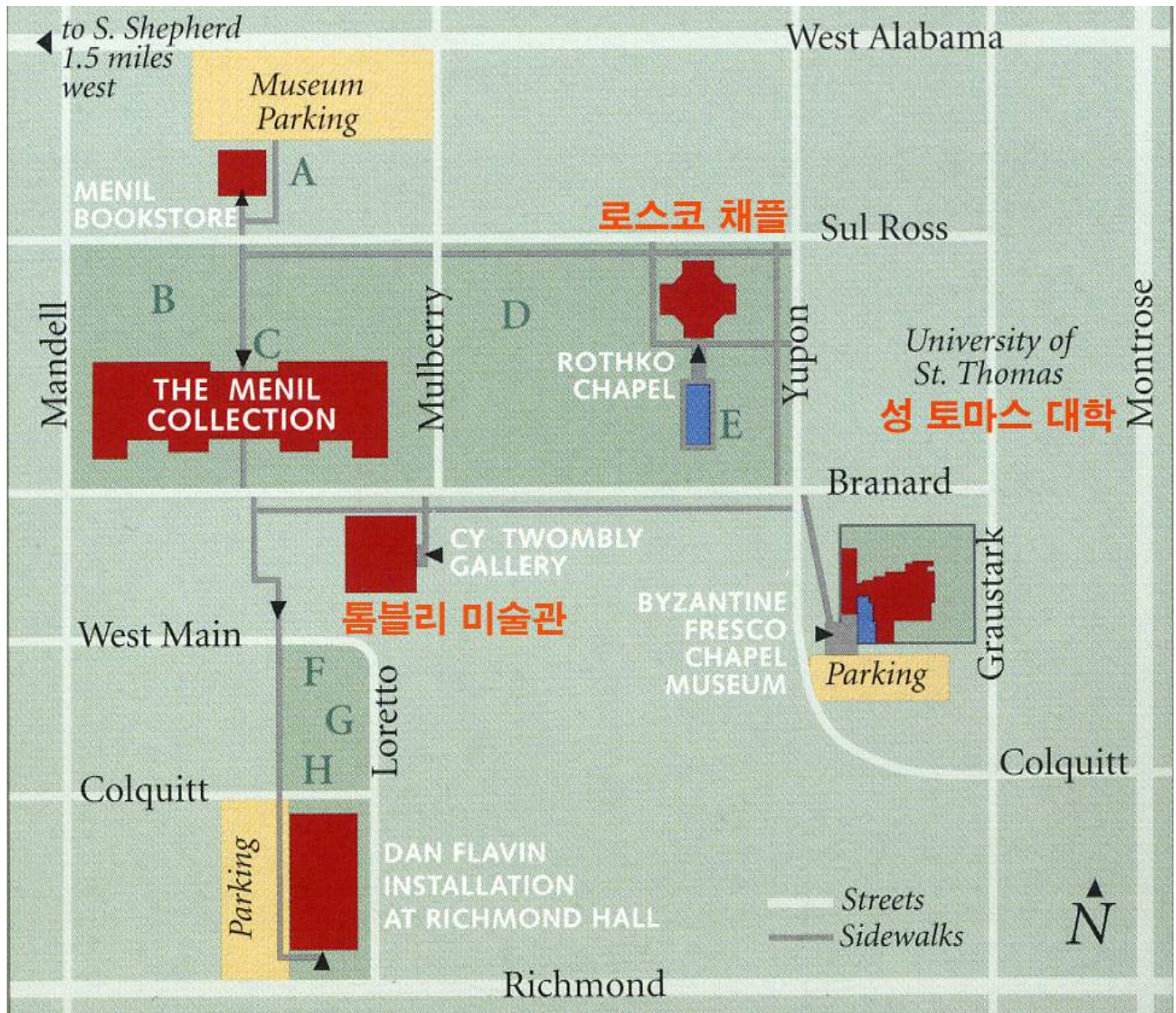


그림 18) 로스코 채플이 위치한 휴스턴 메닐캠퍼스 배치도

(Cy Twombly Gallery), 그리고 댄 플래빈의 설치작품을 위한 전시관 리치몬드 홀 (Richmond Hall)을 잇달아 세웠다.

2001년 내셔널지오그래픽사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소로 로스코 채플을 선정했다. 더불어 살아서 꼭 가봐야 할 건물로 로스코 채플을 꼽았다. 3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마크 로스코 특별전은 미국 워싱턴 내셔널갤러리 소장품 50여점에 로스코 채플 섹션이 결합되어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로스코 채플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재현된 공간은 실제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천장고가 낮다보니 채플의 본래 분위기를 만끽할 수

는 없다. 빛도 상부에서 은은히 스며들지 않는다. 침묵과 고요함이 맴도는 로스코 채플의 진가는 현지 방문이 아니고는 체득할 없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바바라 로즈는 로스코 채플을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과 방스의 마티스 성당에 견주면서 “이들 성당에서는 그림들이 내부로부터 신비스럽게 빛을 발하고 있는 듯 보인다”라고 했다. 그 녀가 로스코 채플과 비교한 마티스 성당은 도대체 어떤 성당일까. 도미니크 수도회 마리 알란 꾸뛰리에 신부에 의해 주창된 성미술(Art Sacre)운동의 결과물인 마티스 성당 이야기, 다음호를 기대해 보자.

ASA National Convention 참가보고서

ASA National Convention Joining Report

글. 국제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KIRA)는 2015년 4월 28일(목)~5월 3일(일)에 개최된 2015년도 태국건축사협회 컨벤션에 초청을 받아 4월30일(수)~5월3일(토) 3박4일 간의 일정에 참가하였다. 태국건축사협회(ASA: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under Royal Patronage)가 주최하는 본 행사는 방콕 무앙통타니 임팩트컨벤션센터(Impact Convention Center, Muang Thong Thani, Bangkok)에서 개최되었는데, <ASA NEXT>를 주제로 지난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후 새로운 도약을 향한 비전을 찾고 건축의 정신성을 공유함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갖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본 협회는 새로 취임한 조충기 회장과 오동희 국제위원장 등 2인이 참가하여 ASA National Convention 공식행사 참가, 전시회 관람, 명예 회원 수여식, KIRA-ASA 간 회의를 비롯하여 각 참가국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ARCASIA Family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건축적 미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였다. 또한 회장추치 만찬을 통해 ASA 및 관련 국가의 건축사협회가 상호간 협력을 구하고 그림으로 ARCASIA 발전을 위해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특기할 것은 이번 행사에 일본의 대표단이 매우 큰 규모로 참가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년간 양 단체간에 실행하였던 Young Architects에 대한 상호 교류, 즉 ASA-JIA Exchange Program에 대한 최종평가발표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행사의 참가국가 및 공식대표단은 주최국인 태국(ASA)을 비롯하여 한국(KIRA) 2명, 일본(JIA) 7명, 라오스(ALACE) 5명, 말레이시아(PAM)4명, 인도(IIA) 3명, 스리랑카(SLIA) 1명, 방글라데시(IAB) 2명, 싱가포르(SIA) 3명, 마카오 1명 등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많은 게스트가 참가하여 이 행사를 축하하였다.

ASA National Con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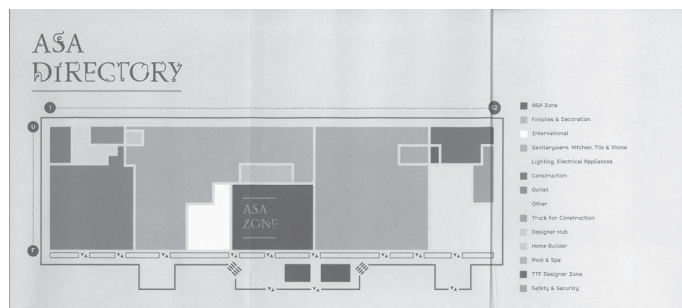
일 시 : 2015년 5월1일 오전 7시~오후 2시

장 소 : Impact Convention Center, Muang Thong Thani, Bangkok

2015년4월30일 오전에 개최된 ASA National Convention 공식행사는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mpact Convention Center 공용 홀에서 개최되었다 오전 7시30분 전시장 도착 후 8시30분

까지 1시간 가량 ASA임원 및 관계자, 아카시아회장, 참가국 대표단이 인사를 나누고 공용홀에 마련된 전시를 관람하였다. <Her Royal Highness Princess Maha Chakri Sirindhorn>로 명명된 공식개막행사는 오전 9시에 시작되어 10시30분 Sirindhorn 공주에 대한 국내, 해외 참가단의 도열인사와 환송을 끝으로 개막식을 마쳤다.

공식개막행사 후 ASA 및 참가국대표단은 10시30분~12시까지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전시장의 규모는 전시 홀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ASA Zone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그 주변에 건축자재 및 주택 등 13개의 Zone으로 구성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1)ASA Zone, 2)마감자재 및 실내건축자재, 3)International Zone, 4)위생기구, 주방기구, 타일 및 석재, 5)조명 및 전기제품, 6)시공, 7) 건설장비, 8)



컨벤션홀배치구성



스폰서 및 참가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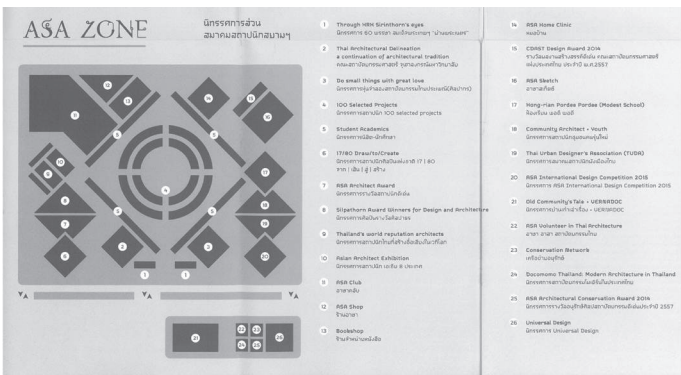
주문주택, 9)Pool & Spa, 10)TTF Designer Zone, 11) 아울렛 및 12)기타 그리고 13)휴게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행사 팸플렛 참조)

ASA Zone

ASA Zone은 모두 2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내용과 전시방법으로 전시를 하였는데 입구 정 중앙의 행사공간과 100 Selected Projects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주제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Zone	Contents	Zone	Contents
1	Through HRH Sirindhorn's Eyes	14	ASA Home Clinic
2	The Architectural Delineation continuation of architectural tradition	15	CDAST Design Award 2014
3	Do small things with great love	16	ASA Sketch
4	100 selected projects	17	Hong-ran Pordee Pordee (Modest School)
5	Student Academic	18	Community Architect/ Youth
6	17/80 Draw/to/Create	19	Thai Urban Designer's Association (TUDA)
7	ASA Architect Award	20	ASA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2015
8	Silpathorn Award Winner for Design and Architecture	21	Old Community's Tale/ VERNADOC
9	Thailand's world reputation architects	22	ASA Volunteer in Thai Architecture
10	Asian Architecture Exhibition	23	Conservation Network
11	ASA Club	24	Docomomo Thailand Modern Architecture in Thailand
12	ASA Shop	25	ASA Architectural Conservation Award 2015
13	Bookshop	26	Universal Design

ASA 전시회의 큰 특징은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 태국 건축계의 다양한 연령층에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고 건축계의 원로로부터 계승된 정신을 젊은 층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공간적으로 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참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태국 건축사, 그리고 전통건축에서 현대건축, 나아가



ASA전시장콘텐츠 구성

서는 미래 도시비전에 대한 내용을 전시에 담고자 했던 것이 인상 깊다. 17/80 Draw/ to/ Create로 명명된 공간에서는 태국의 원로건축사들의 작업공간과 Portrait를 대형 흑백사진으로 세워놓아 태국건축을 위해 헌신해온 그들의 업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시간적인 흐름을 더해 상당한 감정적인 울림을 주었던 것 같다. ASA Architects Award Zone은 이미 골동품이 되어버린 제도관을 전시패널로 활용함으로써 독특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주었다. 전시공간의 중심부에 상당한 면적을 학생들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할애한 것도 특징적인데 아마도 ASA가 그 동안 추구해 온 학생과 Young Architect에 대한 건축계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ASA Sketch Zone에서는 아동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한 장소에서 건축 스케치에 대한 강의와 이것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여 미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건축을 통한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주제별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Universal Design, Modest School, Home Clinic 등을 특별 Zone으로 구성하였고 전통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함께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인상 깊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선정된 작품을 전시한 Asian Architects Exhibition Zone이 잘 눈에 띄지 않았고, 그리고 태국건축의 세계화 및 국제 교류에 의한 건축적 비전 제공이 그다지 제시되지 않아 다소 빈약하게 다뤄졌다는 점이다. 특별히 ASA 전시에서 늘 즐거움을 주는 ASA Club과 ASA Shop은 이번에도 같은 즐거움을 주었는데 협회 차원에서 발간하는 단행본과 기술 관련 책자들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 판매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기념품, 티셔츠, 모자, 가방 등이 선물용으로 제작되어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ASA Shop상품전시



ASA발간책자

ASA Magazine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일본관의 구성이었는데 일본관은 독립적인 부스를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였고 건축관련 5개 단체인 일본건설업연합회, 일본건축가협회(JIA),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일본건축학회가 함께 작품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인다. ASA Zone을 제외한 일반 전시 Zone은 일단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잘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기할 것은 전시장소마다 나라별로 국가와 함께 전시한 것은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역시 중국에서 매우 많은 전시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부스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한류, 세계 속의 한국, 수출만이 살 길 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점이기도 하다.

행사 준비

전시내용에 있어 ASA행사를 위해 제작된 여러 종류의 안내장, 초청장, 행사순서 팸플렛, 행사장 안내자료 등은 내용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의 디자인 방향을 그대로 따라 제작되었으며 관람객들에게 쉽게 인지가 되도록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지를 제작하는 등 편집디자인에 공을 들인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관리자, VIP, 일반입장객에게 색상이 서로 다른 배지를 부착하게 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네임텍, 배지



전시팸플렛

ASA Forum

ASA National Convention을 통해 함께 진행되는 ASA Forum2015는 4월30일(목)부터 5월3일(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SA FORUM 2015

Pheonix Room

Architect'15 Muang Thong Thani

Saturday 2 May

9:30–12:00

John Lin

Rural Urban Framework

13:00–15:30

Peter Rich

Peter Rich Architects

16:00–18:30

Assoc. Prof. Boonserm Premthada

Bangkok Project Studio

Sunday 3 May

9:30–12:00

Solano Benitez

Solano Benitez Architects

13:00–15:30

Amata Luphaiboon

Twitee Vajrabhaya Teparkum

Department of ARCHITECTURE Co., Ltd.

16:00–18:30

Fernando Menis

Menis Arquitectos

Admission Fee

ASA members & students: Free

Non-members: 1,000 Bath

For more information & registration,
please visit www.asaforum.org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UNDER ROYAL PATRONAGE
248/1 Soi Soenvijai 4 (Soi 17), Rama IX Road, Bangkok,
Huay Kwang, Bangkok 10310 THAILAND

Tel +662 319 6555
Fax +662 319 6419
asaoffice@gmail.com
www.asa.or.th



일자	시간	주제
4월 30일	09:30~12:00	Empire
	13:00~15:30	The Renovation
	16:00~18:30	Young Blood Architects
5월 1일	16:00~18:30	Thai-Ness
	16:00~18:30	World class Thai Landscape Architects
5월 2일	9:30~12:00	John Lin Rural Urban Framework
	13:00~15:30	Peter Rich Peter rich Architects
	16:00~18:30	Boonserm Premthada Bangkok Project Studio
5월 3일	09:30~12:00	Solano Benitez
	13:00~15:30	Amata Luphaiboon Twitee Vajrabhaya Teparkum
	16:00~18:30	Fernando Menis

오후 1시30분~2시 사이에 컨벤션센터 내 슈퍼터 홀에서 Tan Pei Ing ARCASIA 전회장에게 대한 ASA Honorary Membership Award 수여식이 개최되었는데 ARCASIA Sathirut Nui Tandanand회장, KIRA 조충기 회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 등 약 100여명이 배석하여 아시아건축교류 및 건축문화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치하하고 ASA Pichai Wongwaisayawan회장으로부터 감사함과 함께 명예회원을 수여 받았다.



ARCASIA Tan Pei Ing회장 명예회원 수여

ASA-JIA Exchange Program 2014

일 시 : 2014년5월1일 오후 4시~시

장 소 : Impact Convention Center 내 슈퍼터 홀

참 석 자 : ASA, JIA 및 각국 대표단,

Young Architect Program 참가자

이번 행사 중 특기할 사항은 태국과 일본간에 진행했던 인적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1년간의 성과보고회가 열렸다는 점이다. 교류 첫째 태국의 OBA(Office of Bangkok Architect)와 일본의 Taro Ashihara 건축사사무소간의 교환근무, 또 태국의 A49로부터 일본의 Yasui Architects and Engineers로의 인적 파견근무를, 또 그 반대로 일본의 Nikken Sekkei 출신의 Young Architect를 A49에 각각 파견하여 1년간의 실무 훈련을 가졌고 이에 대한 긍정적 성과에 힘입어 2년째의 교류를 준비 중에 있다. 특히 Yasui Architects and Associates로의 인적 교류 시 HIDA(The Overseas Human Resources and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즉 해외인력 및 산업개발협회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일본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본의 우호적인 인력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HIDA는 아시아지역 출신의 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교육훈련센터로 6주의 과정 동안 일본어, 문화, 피난 및 안전체험, 현장견학 등을 진행하며 이 교육훈련기간이 끝난 뒤에 해당 기업에 인력을 보내게 된다.

양국 참가자 4명으로부터 각각 발표내용을 보면 두 나라에서의 일의 방식, 근무환경, 언어적인 적응에 확연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무투입시간 및 일의 집중도 면에서 일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태국의 경우 가족과 개인생활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태국의 설계시스템이 분업적인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업무참여도에 있어서는 일본의 건축사사무소에 참여한 태국참여자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환경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해당 기업의 대표들이 함께 단상에 올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시간을 진행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각자의 위치에

서 의미 있는 발전과 함께 장래 양 단체간의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언어적인 소통, 특히 태국으로 온 일본의 Architect의 경우 대체로 업무적인 대화를 영어로 하게 되어 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아 언어 습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국의 경우 비자를 내는 데에 기간의 한정이 있어 아직은 제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A-JIA관계자 및 참가기업, 참가자

ASA-KIRA Meeting

일시 및 장소 : 2015년5월2일 오전 11시~12시

르네상스 라차프라종 호텔, 5층 회의실

참석자 : ASA / Mr. Pichai Wongwaisayawant (ASA President),
Mr. Sathirut Nui Tandanand(ARCASIA President),
Mr. Nitis Sthapiyanonda(Vice President),
Ms. Salila Traculvech (Staff in charge)
KIRA / Mr. Chung Kee Cho(KIRA President),
Mr. Donghee Oh
(Kira Chair of International Relation Committee)

회의주제

1. KIRA 신임회장 소개 및 상호 인사
2. KIRA, ASA 회원에 대한 건축견학 프로그램 지원 및 포럼,

세미나 개최 지원

3. 양국간의 건축 동향 및 건축교육, 취업에 대한 의견 교환
4. 양국간의 설계협력 사례 정보교환
5. ASA 컨벤션 및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한국의 공모전 사례
6. Young Architect 인적 교류 및 학생
7. 기타 자료 제공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정보 공유
 - 2) 친환경에너지 정책 정보 공유
 - 3) 2014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및 마스터플랜 정보 공유
 - 4) 한국 건축학과 관련 홈페이지 자료 전달
 - 5) 건축문화대상 단행본, 신진건축사대상 단행본 자료 전달

회의내용

2015년5월2일 오전 11시 태국건축사협회(ASA)와 대한건축사(KIRA)간 회의를 개최했다. 장소는 방콕소재 르네상스 방콕 라차프라종 호텔 5층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는 태국건축사회장을 포함해 3인과 대한건축사회장, 국제위원회위원장 2명이 참석하였다

상호간 초청에 대한 감사인사 후 오동희 국제위원장으로 부터 신임 조충기 회장 소개가 있었는데 조충기 회장은 KIRA를 대표하여 태국건축사대회를 축하하고 양 협회 간의 협력과 교류에 더욱 힘쓰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Pichai 회장은 조충기 신임회장에게 지난해 구미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초청과 명예회원 수여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한국의 역동적인 대회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

2014년도 ASA회의 시 논의했던 주제로서 KIRA, ASA 회원에 대한 건축견학 프로그램 지원 및 포럼, 세미나 개최 지원 등에 대해 상호 동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앞으로 각국이 상대국에 건축견학을 위해 방문할 경우 건축견학 관련 정보 및 교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ASA는 2014년도 베니스비엔날레, 2015년도 인도방문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7년도 UIA 서울대회와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KIRA의 방문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협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KIRA는 한국 및 서울과 관련된 도시, 건축 및 관광 관련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여 ASA의 회원들이 한국의 방문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ป้าย: สถาน"นคร

เป็นสถาปนิกนั้น
ทั้ง ในฐานะที่
การสร้างสรรค
มนุษย์
ผู้ที่มีความรู้
โยงมิต
ม เศรษฐกิจ
ความเป็นมนุษย์
ให้ถึงคุณค่าแท้
ประโยชน์
แท้จริง"

อย่างไร
ที่หลาหลาย
กลองขึ้นน้ำพริกมากกว่า
ย้อมรินของนาชาติ
เฉพาะ ในอดีต
กับบริบท และภูมิประเทศ
รู้คุณค่า
งเราอย่างไร"

องเป็นเรื่องเดียวกับ
ส่วมีความสุข
มีค่ากับตัวเรา
มีขนาดเล็กหรือใหญ่
ปึกทุกคน
ยังยืนของโลก



จุลทัศน์ กิตติบุตร

สาขาศิลปะสถาปัตยกรรม (สถาปัตยกรรมร่วมสมัย)



Pradit Chutwong

ประติษฐ์ ยุวะพุกกะ

ศิลปินแห่งชาติ สาขาศิลปะสถาปัตยกรรม (แบบประเพณี)



김현진건축사 Asian Architecture Exhibition 작품 전시

특히 ASA는 KIRA에서 진행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ASA가 앞으로 참고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조충기 회장은 KIRA의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각 시도건축사회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ASA Pichai회장은 KIRA의 영화제 행사시간과 맞추어 건축견학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국 간의 건축설계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의 건축사들에게 협회를 통하여 설계관련 정보를 비롯한 Local Collaboration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태국 또한 아직 태국시장의 개방성이 지역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 아래에서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KIRA는 최근 진행된 설계협력사업의 사례로서 태국적십자사혈액제제공장(Thai Red Cross Fractionation Plant)을 소개하였는데 한국의 녹십자, 녹십자EM, 간삼건축이 참여하고 현지의 ATT건축이 어떻게 협력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요약설명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번 ASA Expo에서 특이한 전시코너가 있었는데 <17/80 Draw/to/Create>로 명명되어 태국의 원로건축사들의 고뇌에 찬 얼굴사진과 작업실사진들이 대형패널로 전시되었다. 그 제목의 의미를 물으니 지난해에 ASA가 80주년을 맞았고 금년 81주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태국건축의 오늘을 이끌어 온 원로건축사 17명의 작업과 창의성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여 관심 있게 느껴졌다. 또한 ASA Expo가 ASA Zone외에도 건축자재, 기술 등의 건축 관련 전시가 이렇게 큰 규모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질문에 이제까지 30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특기할 것은 태국의 경우 한국이 여러 번 또 여러 단체가 따

로 개최하는 것과 달리 건축 관련 전시를 이때에 집중하여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그 규모, 또 운영적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Pichai회장은 이번 전시회에 한국의 김현진 건축사의 작품 등을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고 Sathirut Nui Tandanand Arcasia회장 또한 한국의 신진건축사들이 AAEA(Arcasia Award for Emerging Architects)에 참여하여 주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Young Architect교류에 대해서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를 지속한다면 장래 양국간의 건축문화 및 건축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관심을 가지고 지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양국의 건축설계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요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회와 회원사 간에 상호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ASA가 KIRA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도건축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고, 한국의 건축사 비스산업진흥법, 녹색에너지정책, 서울시의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ASA Pichai회장은 조충기 회장의 이번 방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2016년도 ASA 건축사대회시 다시 방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조충기 회장에 대한 명예회원 수여와 양 단체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ASA 회장주최 만찬

일 시 : 2015년5월2일 저녁7시~10시

장 소 : 달링플링 레스토랑

참석자 : ASA회장 및 임원,

각국대표단 등 약 30여명 등 총 40명 정도

ASA는 창립 80년을 기념하며 ALACE(라오스), IIA(인도), JIA(일본), KIRA(한국), PAM(말레이시아), SIA(싱가포르), IAB(방글라데시), AAM(마카오) 등 각국 대표단을 초청하여 회장주최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 만찬에는 ASA임원 및 관계자, 그리고 각국 초청자 및 관계자 등 약 40명이 함께하였는데, 만찬행사는 Pichai 회장의 인사로 시작하였다. Pichai회장은 먼저 행사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을 일일이 소개하며 ASA81주년 행사참가에 감사를 표하였다.

는데 공이 큰 사람이다. 그는 Jim Thompson House를 통해서 또한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이 주택은 태국전통건축을 잘 나타내는 6채의 건물을 이 장소에 옮겨다가 재구성하였는데 이 주택들은 적게는 이백 년이 넘는 것이고 일부는 옛 수도인 아유타야로부터 옮겨온 것이다. Jim Thompson은 태국의 전통건축기법을 충실하게 따라 건축하였는데 우기의 범람을 피해 건물을 한 층 높게 하고 지붕재 또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 방식으로 아유타야에서 구어진 것을 사용하였다. 이 주택과 소장된 예술품은 곧 여러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었고 그는 이 장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Thai Charities에게 기부를 하여 오늘에 이르는데 이 아름다운 Thai House는 그의 놀라운 창의성과 함께 태국을 향한 그의 깊은 애정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온다.

Architectural Excursion

일 시 : 2014년5월2일 오후2시~6시

장 소 : Suan Pakkad Palace Museum,

Jim Thompson House and Museum

ASA의 안내로 태국의 전통을 감상할 수 있는 두 곳을 방문하였다. Suan Pakkad는 번역하면 배추밭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 장소가 Chulalongkorn왕의 손자인 Chumbhot Paribatra왕자의 집으로 건축되기 전에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궁과 정원의 주변에는 8채의 태국 전통 주택이 모여있는데 이것은 태국의 여러 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져 1952년에 다시 건축된 주택이다. 이 건축물은 태국의 전통적인 공예품과 악기, 그리고 예술품들을 모아 놓은 장소로 활용되었고, 지금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박물관은 현재 태국의 자선단체인 Chumbhot Pantip 재단 소유로 되었는데, 이 단체는 교육, 역사보존, 예술과 문화에 관련된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Jim Thompson House는 미국인 Jim Thompson이 2차 세계대전 시 태국으로 배치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태국의 실크사업을 통해 큰 성공을 이루었고 태국의 실크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

글. 김성환_Kim, Sunghwan

Lanz Architekten und Generalplaner

Michel Casertano, Atelier Brückner, Assoziiierter

건축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실 특정인이 정확한 문장이나 그림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영향력이 넓고 광대하고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는 공학적인 특성이 가지는 산술적인 보고서나 기초를 토대로 한 참고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역량부터 공학적인 지식까지 한데 어우러져 그가 머리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3차원적인 상상력을 쏟아내기 때문에 한계를 단정짓기가 어렵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을 통한 다른이에게 전달하고 같이 조화롭게 일을 진행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수고가 항상 질문이 되어진다. 다양한 경험과 질문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도전하며 그 에너지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는 건축사를 한명 소개하고자 한다.



MICHEL_CASERTANO

Michel Casertano는 독일 남부 Stuttgart에서 태어나 TU München에서 공부를 마치고 현재 Atelier Brückner에서 Assoziiierter로 자리하고 있다. 대표작인 BMW Museum 실내 전시 디자인부터 2012년 여수 엑스포에 GS Caltex Pavillion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기회를 담당하였다. 그는 기초적인 건축에서 시작하여 현재 Szenographie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또한 다른이들로 하여금 항상 궁금증을 갖게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전, Stuttgart 근교에 자신이 설계한 자신의 집을 마무리 지었다며 보내준 사진에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에너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 또한 해결하고자 Atelier Brückner 사무실에서 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좋은 아침입니다. 독자들을 위해 간단한 질문부터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건축과 인연을 맺고 공부를 시작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뮌헨이라는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로서 역할을 했는지 궁금도 하네요.

A. 사실 뮌헨이 도시로서 저에게 건축공부와 관련되어 사실 큰 역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면, 제가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지어진 올림픽 단지(Das Olympische Dorf in München)에서 성장했던 것이 하나의 연관성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렸을때부터 개인적으로 장난감, 전등 그리고 작은 가구 등을 스케치하고 만들고 그리고 장식하는 것에 대하여 재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좀 더 특별한 교육과정없이 단순한 디자인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 이후 고등학교때에는 응용미술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졸업 직전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그리스에 있는 에피다우로스 극장(Epidauros Theater)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 자연과 순수기학 그리고 공간에서 나오는 음향학, 이 세가지 조화로움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건축을 공부해야 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Q. 그럼 졸업작품 관련된 이야기부터 할까요? 인터뷰를 준비하던 도중에 우연히 TU München 홈페이지에서 당신의 졸업작품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제는 "경기장의 형태와 구조(Konstruktion und Form von Stadien)"이었는데요. 건축적인 견해로 관찰할때, 이 졸업작품은 기능성에 대하여 집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기능성을 경기장의 형태까지 연결할 수가 있었죠?

A. 그 졸업작품은 저의 졸업동기 Michael Keltsch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동안 구조연구를 하는 회사와 설계를 같이 경험하고 사물에 대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설계의 기본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기능적이었으며, 또한 저희에게 그 설계가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세분화하였으며, 산술적으로 계산된 설계였죠. 마지막으로 완성된 형태는 그러나 굉장히 상징적인 조각물처럼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스스로 시드니 오페라의 원리 즉, 저층부에 위치하고 있는 기본기능들과 그 위에 주요기능이 그림같은 조각으로서 군림하는 원리안에서 설계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당시 졸업설계와 동시에 뮌헨 축구 경기장 공모전에 참가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저희는 이 공모전에서 Herzog de Meuron이 제안한 Allianz-Arena와 저희 설계가 굉장히 다르면서도 비슷하고 부분적으로 유사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죠. 여기서 당시 저희는 조금은 자랑스러웠지만, Herzog de Meuron의 제안이 더 급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죠. 이 경기장은 그



Michel Casertano의 집. Casa Klee



CASA_KLEE2_Michel_Casertano

러는 사이 점차 또 하나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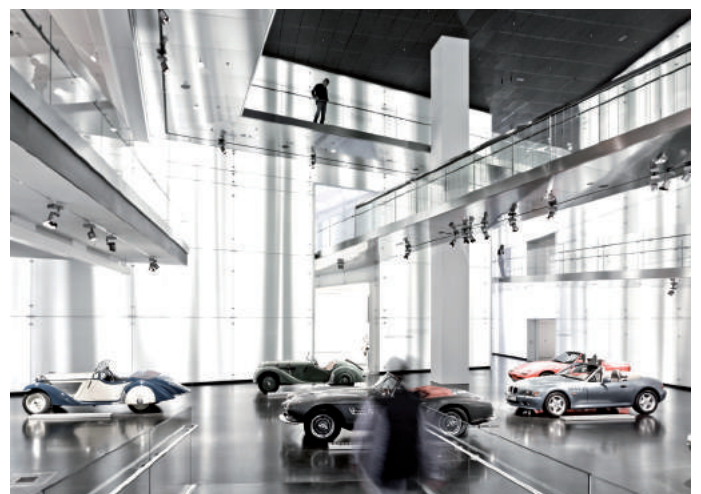
Q. 현재 일하고 계신 Atelier Brückner는 보통 Szenographie라는 영역에서 유명한데요. 건축과 관련되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과 공간안에서 3차원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로서 이 차이를 좀더 설명할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작년 6월 프랑크푸르트, 독일 영화박물관(das deutsche Filmmuseum in Frankfurt am Main)에서 진행된 강의와 관련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고려사항 전에 많은시간 다듬어 온 기본적인 정보위에 건축과 공간들을 구성하고 연결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형태는 정보에 따른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구성에서 만들어지는 정보의 변환시 저희는 Szenographie적으로 일을 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극적인 입체화, 공간구성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진 분위기를 전체적인 구성요소 즉, 공간, 빛, 미디어 그리고 그래픽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페라나 영화에서 하나의 프롤로그와 여러개의 막으로 구성된 주요부분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하나의 연출론이 있는거죠.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들과 구성이 "하나의 큰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요구사항이 많은 회사에게 맞는 자세와 설계과제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되어 단정지어 그 차이를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간안에서 움직이는 방문객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시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에서는 종종 그 자체의 순수 목적이 되는 그리고 더이상 실제적인 건축과제와 관계가 적은 구조와 형태들이 사실 크게 정지된 형태로서는 고려되지 않죠.

Q.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중에 하나인 뮌헨의 BMW Museum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은 어디에 있나요? 제 시각에서는 사실 고객의 전시공간안에서 보는 형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회사가 가지는 이상의 정의안에서 보통 다시 찾게 되고, 입체화된 공간에서 다시 반영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상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BMW Museum은 독일 건축사 Karl Schwanzer가 거대한 램프의 형태에서 오는 변형된 공간안에 길이 뻗어나가는 그의 주요생각에 영향을 준 거대한 밥그릇모양의 전체 중심건물앞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오늘날의 용도에 비해 너무 작았고 그래서 확장이 되었어야 했었죠. 우리는 이 주요 주제를 현재 상설 전시가 일어나는 가까운 서쪽 날개부분에 집중시켰습니다. Art+Com회사와 함께 우리는 "Mediatektur(Media+Architektur)"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주요 내부공간을 가득 채우고, 전체 BMW 광장을 다양하게 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정지되고 물리적인 공간은 스스로 열리고, 그 건축은 이 연주를 통해 다양하게 되는거죠. 이를 통해 회사이미지가 전달이 됩니다. 방문객들은 고급회사이미지의 심도있는 디자인이 지닌 스포츠쉽과 교양성을 새롭게 경험하고 BMW자체의 슬로건 "주행의 즐거움"뒤에 있는 그 역동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여정은 하나의 연출론을 따릅니다. 입구부분에서 얻는 시선의 흐름부터, BMW 광장넘어 보이는 Art Empore까지 전체 램프가 새로운 연결고리로 만들어지는 7개의 전시큐브와 밥그릇 모양의 중앙까지 대략 1000m길이의 전시테라스위로 방문객을 유도하는 것이죠. 가장 윗부분의 플랫폼에서 이 테라스는 전체 마지막 하이라이트로서 360도 공간연주를, 즉 시각적인 심포니 안에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프로젝트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과 연결되고,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일으며 세우기 위해 만드신 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누군가를 확신시켜야 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사장까지 변형시킬 수 있는 건축주와 회사들의 용기도 또한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수 있는 프로젝트 팀과 담당자 또한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건축사들, 모든 어려운 부분들에서도 저지 당하지 않고 또한 특이하고 진보적인 프로젝트들에서 필수적인 일관성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건축사들의 주요 과제이지요.



Michel Casertano가 디자인한 BMW Museum의 내부 전시공간 (사진 Marcus Meyer)

글. 송준환_ Song, Jun-hwan

아마구치국립대학 대학원이공계연구과 건축디자인공학분야 조교

기획·설계에서 시공·경영까지 건축사의 역할

「키타하마(北浜) alley」, 워터프론트 창고재생

Roles of Architect from Planning to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Kitahama ally」, the case of Storehouse Remodeling in Waterfront Revitalization Project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대규모 구획정리사업, 토목사업 등의 고도성장기 도시재개발의 경제원리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려운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와 같이 지역 퍼텐셜이 없는 곳은 더욱 그러하다. 한편, 고도경제성장기와 함께 등장한 워터프론트의 공장지대는 이제는 폐쇄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공간 또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창고공간을 재 활용한 사례로, 오픈하여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 있다. 일본 시코쿠(四国)지역 타카마츠(高松)시¹⁾의 항구에 위치하는 「키타하마(北浜) alley」²⁾로서, 이 창고마을은 JR 타카마츠역의 동측, 해변도로를 따라 걸어서 10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한다. 이 주변지구는 한때, 해군선박 선하차장으로 활기를 띤 곳으로 1930년대부터는 곡물창고 등으로 사용됐다. 그 한 구획에 있었던 카가와현(香川県)의 농업협동조합(이하, JA)이 소유하는 창고군집을 지역건축사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2002년에 오픈,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명소가 되었다.

■ 역발상을 통한 실현가능한 부동산 개발스킴(scheme)의 완성

전체기획을 담당한 이노우에(井上)건축사사무소는 JA로부터 창고를 일괄 빌려, 만조시의 바닷물 유입을 대비하여 바닥레벨 500mm를 올리고, 누수보강, 전기·가스·수도의 정비를 실시한 뒤, 다시 세입자에게 빌려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최대한 초기비용을 억제하여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중심시가지의 25%인 평당 3,500엔의 임대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세입자는 3년 계약

으로, 임대료에는 변화가 없고, 그 이상의 누수·한풍(寒風)대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포오너와의 상담을 통해 비용부담을 결정하고 있다. 전체 세입자는 17점포로, 이노우에씨가 직접 면접을 통해 실적과 신용력보다는 열의를 중시하여 젊은 경영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카페, 작은 바, 창작요리점, 잡화점, 꽃가게, 미용실 이외에, 디자인 사무소와 카페와 미용실, 카페와 오피스의 복합형 점포 또한 입주하고 있다.

이렇듯 종래의 부동산 개발은 멋진 조감도를 제시하여 최대한의 투자비를 끌어 모아, 일단 최대 규모의 건물을 만든 후, 충수를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최대한 비싼 임대료로 유치하여 개발이익금을 환수받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본 사업에서는 개발이전에 건축사가 세입자 마케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출점자를 모으고, 출점자가 지불가능한 임대료를 전제로 임대계약조건을 책정하여, 임대료에 맞는 범위 내에서 건물 리노베이션 등의 투자를 실시하는, 종래 방식의 역방향으로 부동산 사업을 추진한 특징이 있다.

■ 용도만 변경, 건축물 그대로 활용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창고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창고의 구조를 보강한 뒤에 부적격 건축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기준법상, 단일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를 넘으면, 스프링클러 등의 방재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은 넓히지 않고, 오히려 면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삭감하여, 늘어선 4동 중에 1개의 동은 지붕구조부분 일부만을 남겨두고 철거하였고,

1) 타카마츠시: 인구 약43만명, 면적 375.14km², 인구밀도 1,143명/km²(참고, 서울 17,225명/km²)

2) 키타하마alley(제1기), N.Y. GALLERY(제2기)

- 소재지: 카가와(香川)현 타카마츠(高松)시 키타하마초(北浜町) - 지역·지구: 상업지역

- 개업: 2001년5월(제1기), 2004년 9월(제2기)

- 시설규모: (제1기) 부지면적2,950m², 건축면적1,487m², 연면적1,845m² / 지상 2층

(제2기) 부지면적641m², 건축면적526m², 연면적726m² / 지상 2층

- 주차대수: (제1기) 60대, (제2기) 10대 - 구조: 목조 / 건축후 약70년경과

- 임거 세입자수: (제1기) 음식점6, 물건판매7, 사무소2, (제2기)음식1, 클리닉1

- 소유자: JA카가와현 - 기획자·설계자·시공자·운영자 이노우에상업환경설계(井上商環境設計)

- 개발 총 사업비: 약1,500만엔



철거부분의 바닥을 빨간 벽돌로 깔아 내부 중정「파티오」로 활용하고 있다.

■ 신설부분은 최대한 숨기고, 오래된 복고풍 느낌은 그대로 살리는 디자인

외벽 또한, 기본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나무 등의 썩고 녹이 쓴 창고의 외관을 최대한 살리고, 옥외기 등 신설되는 냉온방설비는 녹슨 함석판으로 숨기는 등, 오래된 창고의 매력을 살리려는 컨셉을 철저히 지키면서, 친근감 있는 뒷골목길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간판에 있어서도 미용실, 레스토랑 등 구체적이고 큰 글자가 아니라 녹슨 창고가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하나의 간판」이 되도록 해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리모델링 비용을 줄이면서 복고적인 분위기의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뜯어낸 녹슨 함석판을 지붕의 내벽으로 사용하거나, 해체한 부재를 카운터의 장식에 활용하는 등 공사 중에 발생한 부재도 가능한 한 재활용하였다.

■ 지역 경영자로서의 건축사의 역할

상기의 일련의 활동을 추진하는 주체자로서, 지역건축사이자 「키타하마 alley」내에 건축사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노우에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지역에 살면서, 1990년대 후

반 창고군집에 관심을 가졌고, 2001년 5월 JA의 창고관리동이었던 목조 2층 건물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직영하고 있는 아시안 앤틱점「나자(Naja)」를 최초로 개업하게 된다. 이 시범적 사업이 화제가 되어, 창고마을에 출점을 희망하는 점포오너가 입소문으로 50명 이상이 모였고, 이에 이노우에씨는 JA에 건물군 활용플랜을 제안하게 된다.

건축사에게는 지역과 건물에 잠재되어 있는 매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게 하는 역할이 존재한다. 이 사례는 지역 건축사가 소규모이지만 부동산개발의 리스크를 안고, 점포경영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지역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설계자와 디자인너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가하면 노동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것으로 그 사업은 종료된다. 그러나 「키타하마 alley」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운영에 관여하는 등 건축사의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木下 齊・広瀬 郁, 『まちづくりデッドライン』, 日経BP社, 2013
2.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CLOSE UP 改修 北浜アリー(高松市)さびた倉庫で人を呼ぶ,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727), pp. 8-13, 2002
3. 井上 秀美, 케이스タディ 井上商環境設計(株) 代表取締役 井上秀美氏 北浜アリー-倉庫がみせる空間とテナントの個性が人の流れを蘇らせる-, レジャー産業資料36(10), pp. 106-109, 2003

1_ 창고마을전경(좌)과 내부중정(우)

2_ 점포내부 및 골목길 전경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5년 5월초

시도	정회원 현황		정회원 사무소 현황											
			개인 사무소				법인 사무소						사무소 없음	사무소 합계
	정회원 수	비율	1인	2인	3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서울	2,430	25.5%	976	18	0	994	927	109	35	16	11	1,098	36	2,128
부산	813	8.5%	569	5	2	576	138	27	6	2	1	174	4	754
대구	737	7.7%	563	13	5	581	74	11	5	2	1	93	9	683
인천	394	4.1%	303	2	0	305	61	7	1	0	0	69	9	383
광주	318	3.3%	230	1	0	231	57	5	1	2	1	66	3	300
대전	359	3.8%	270	5	0	275	37	6	3	1	1	48	3	326
울산	246	2.6%	208	4	0	212	19	3	0	1	0	23	1	236
세종	57	0.6%	32	0	0	32	19	3	0	0	0	22	0	54
경기	1,298	13.6%	936	2	0	938	273	14	4	2	1	294	24	1,256
강원	254	2.7%	210	2	0	212	31	2	0	1	0	34	1	247
충북	330	3.5%	249	2	0	251	50	2	2	2	1	57	1	309
충남	368	3.9%	293	2	0	295	55	6	0	1	0	62	0	357
전북	335	3.5%	280	4	0	284	32	6	0	0	0	38	3	325
전남	262	2.8%	220	0	0	220	32	3	0	0	0	35	4	259
경북	537	5.6%	468	5	1	474	42	5	0	0	0	47	4	525
경남	600	6.3%	540	3	0	543	48	3	0	0	0	51	0	594
제주	182	1.9%	147	0	0	147	26	3	0	0	0	29	3	179
합 계	9,520	100%	6,494	68	8	6,570	1,921	215	57	30	17	2,240	105	8,915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5년 5월초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비 고	13033	4623

이사회 개최 현황

□ 제4회 이사회

2015년 제4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5일(수) 오후5시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2014회계년도 정기감사 결과 조치계획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이 논의 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위임전결규정 개정의 건」, 「준회원 입회 승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 「건축사공제조합 TF」를 설치하여 회원과 협회의 이익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2014회계년도 정기감사 결과 조치계획의 건
 - 감사와 협의해서 조치 후 2014회계년도 정기감사 결과 조치보고를 하고 의견 취합
- 제3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 : 위임전결규정 개정의 건
 -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준회원 입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1명, 이승석)

기타사항

- 지역건축사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회장의 임기가 각 지역건축사회별로 2년 또는 3년으로 해당 건축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 개정 및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분임토의 주제 포함 등을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2015년도 제1회 임원,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

2015년도 제1회 임원,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4월 15일 오후2시 협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협의사항으로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이 논의 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
 - 특별강연은 제외하고 건축사 업무업역 확대 등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하도록 함.

건축계 소식

‘2015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5월 27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5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국토교통부 주최·대한건축사협회 주관)이 5월 6일부터 27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진건축사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은 그 해 최고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인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한 수상전이다.

수상전의 참가자격은 공모 공고일(5월 1일) 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로서 본인 단독설계 완공작품이 1개 이상인 신진건축사이다.

신청자 편의제고를 위해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이루어지는 참가신청은 5월 6일부터 27일까지, 완공작 관련 포트폴리오 및 건축물 대장 등의 신청서 접수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건축분야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약 2개월에 걸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오는 9월초에 최종 수상자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에는 국토부장관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장상 5명 내외이고, 작품집 발간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해당 건축사와 작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본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kra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을 대한건축사협회 사무국(02-3415-6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건축사회 신임회장에 ‘최성두 건축사’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장선출을 하지 못했던 강원도건축사회는 4월 24일 강릉 세인트컨벤션 1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최성두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강원도 재적회원 250명 중 111명 출석했으며, 만장일치로 최성두 건축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사회 개최 현황

□ 제4회 이사회

2015년 제4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5일(수) 오후5시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2014회계년도 정기감사 결과 조치계획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이 논의 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위임전결규정 개정의 건」, 「준회원 입회 승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 「건축사공제조합 TF」를 설치하여 회원과 협회의 이익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2014회계년도 정기감사 결과 조치계획의 건
 - 감사와 협의해서 조치 후 2014회계년도 정기감사 결과 조치보고를 하고 의견 취합
- 제3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 : 위임전결규정 개정의 건
 -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준회원 입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1명, 이승석)

기타사항

- 지역건축사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회장의 임기가 각 지역건축사회별로 2년 또는 3년으로 해당 건축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 개정 및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분임토의 주제 포함 등을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2015년도 제1회 임원,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

2015년도 제1회 임원,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4월 15일 오후2시 협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협의사항으로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이 논의 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
 - 특별강연은 제외하고 건축사 업무업역 확대 등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하도록 함.

건축계 소식

‘2015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5월 27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5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국토교통부 주최·대한건축사협회 주관)이 5월 6일부터 27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진건축사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은 그 해 최고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인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한 수상전이다.

수상전의 참가자격은 공모 공고일(5월 1일) 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로서 본인 단독설계 완공작품이 1개 이상인 신진건축사이다.

신청자 편의제고를 위해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이루어지는 참가신청은 5월 6일부터 27일까지, 완공작 관련 포트폴리오 및 건축물 대장 등의 신청서 접수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건축분야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약 2개월에 걸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오는 9월초에 최종 수상자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에는 국토부장관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장상 5명 내외이고, 작품집 발간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해당 건축사와 작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본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kra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을 대한건축사협회 사무국(02-3415-6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건축사회 신임회장에 ‘최성두 건축사’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장선출을 하지 못했던 강원도건축사회는 4월 24일 강릉 세인트컨벤션 1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최성두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강원도 재적회원 250명 중 111명 출석했으며, 만장일치로 최성두 건축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부여지역건축사회-부여군과 간담회 가저



부여지역건축사회는 지난 4월 6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부여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부여군에서 지역 건축사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한 건축 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편의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건축조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군수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료로 기술 지도하는 기술지원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에도 거뜰히 견딜 수 있고 여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수준 높은 건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여지역건축사회는 지난해 219동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 주는 재능기부를 실시하여 소규모 건축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는 단독주택과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유일호 장관과 건단련 소속 단체장 조찬간담회 참석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과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3개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협회는 조충기 회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회장은 “건축설계가 10조원 시장이 되면 건설시장은 2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밝히며, 건축시장 활성화에 대해 건의했다. 아울러 건설위주의 정책 중 국토부에서 유일하게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정책관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징계에 대한 권한을 요구했다. 조회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건축사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사)한국외단열건축협회 공식 출범



사단법인 한국외단열건축협회(이하 외단열협회)가 지난 4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창립회원 54개사가 모인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건설사와 종합건축사사무소, 단열재 원료사, 외단열 소재 제조사, 시공산업, 학계, 연구계 인사들이 창립회원으로 참석했으며, 초대회장에는 한국바스프(주) 임재영 사장이 추대됐다.

외단열협회는 올해 한국형 외단열 기술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로드맵에 따른 건축물의 중장기 에너지 성능 확보와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내화성능 등 안전성능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외단열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건물에너지절약 정책 추진과 함께 건물에서의 단열효율 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외단열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단열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단열협회는 경쟁입찰의 심화와 최저가 입찰 등에 따른 제품의 품질저하, 시공표준의 미정립 및 시공인력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천지역건축사회,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사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4월 12일 사천지역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회원과 사천시 건축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청렴실

현'을 위한 협약체결과 인재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천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직 공무원과 함께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등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익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익산지역건축사회는 익산시와 지난 4월 22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민중심 안전·환경 우선행정 ▲재해·재난사전예방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설계(CPTED)강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개발시 건축 설계비 50%감면 등을 협약했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안영목 회장은 “공무원들과 회원들이 협력해 안전한 도시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마포구지역건축사 18명, ‘안전지킴이’활동

마포구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4월부터 마포구 ‘안전지킴이’로 활동한다. 이는 대수선공사시 건축 비전문가가 구조조를 보강계획 없이 임의로 해체하여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포구에 재능기부를 한 것.

그동안 해마다 대수선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사감리 시행이 의무가 아님에 따라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마포구의 이번 사업은 마포구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8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전액 비예산으로 진행되며 대수선공사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역건축사회, 수원시와 간담회 가져

수원지역건축사회는 수원시와 지난 4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건축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서태원 수원지역건축사회장을 비롯해 관내 건축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건축관련 공무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건축문화 품격 향상 및 건축도시 디자인 활성화 방안 ▲건축물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사와 공무원의 역할 ▲공공발주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했으며, 홍익대 유한준 교수가 ‘도시 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건축사들은 조경 및 주차장 완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에 줄 것을 건의했으며, 수원시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15 제11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2015 제11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지난 5월 7일, 8일 양일간 대구광역시 강변축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건축사축구동호회 19개 팀, 500여명의 건축사가 참석했다. 우리협회 조충기 회장은 대회에 앞서 “축구대회는 각 시도의 명예는 물론 전국의 건축사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라며, “언제나 회원들의 자존심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힘차게 달리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건축사축구대회를 축하해 대회에 참석한 건축사들의 사기를 높였다. 5월 7일 예선과 8일 본선을 거친 결과 경기 청이 우승을 울산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경기 청의 송운섭 건축사가 수상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네팔 지진피해 구호성금 모금

우리협회는 네팔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건축전문가단체로서 범건축계 차원의 지원방법을 찾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지난 4월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협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1인 기부운동’을 진행한다.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와 협력해 특별모금 활동을 펼치는 것.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건축사회원뿐만 아니라 건축관련 단체 및 건축종사자, 건축대학 등 범건축계가 동참하는 성금모금을 요청했다. 성금모금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전 회원들에게 성금모금 독려 메일을 보내는 한편 기타 건축관련 단체에 동참 유도 협조요청을 보냈다. 조충기 회장은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 피해에 대해 네팔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하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어 네팔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속히 벗어나길 기원한다”며 “범건축계 차원의 성금모금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위로서신을 네팔건축사협회에 보내고, 아시아지역 건축사단체들과도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아이티 지진과 2011년 일본 지진 피해 당시 각각 2천만 원씩 성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도 했으며, 태국 홍수 피해(2011)와 필리핀 태풍 피해(2013) 시 태국건축사협회와 필리핀건축사협회에 각각 지원금을 보내기도 했다.

<보낼 곳: 기업은행 667-002597-04-257 예금주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역7017 국제현상설계공모 비니마스의 '서울수목원' 선정

- 총 7개 작품(국외 4, 국내 3)중 네덜란드 건축·조경 전문가 비니마스 작품 선정
- 서울역고가 큰 나무로 설정, 램프 나뭇가지로 비유...17개 보행길과 자연스럽게 연계



서울시는 서울역7017 프로젝트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네덜란드 건축·조경 전문가인 비니마스(Winy Mass)의 '보행길을 수목원으로' (Green City Project)를 주제로 한 '서울수목원'(The Seoul Arboretum)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수) 밝혔다.

당선작은 고가를 공중(空中)정원으로 조성하는 기본구상안으로 서울역고가를 하나의 큰 나무로 설정했다. 퇴계로에서 중림동까지 국내 수목을 가나다순으로 심고, 램프는 나뭇가지로 비유해 시가 발표한 17개 보행길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자연을 매개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명의 장소로 전환하는 비전과 전략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며, 노후화된 고가와 주변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건축·조경·구조 분야의 협업과 근대 산업유산을 되살리는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외 초청작가 7명을 선정, 국제 지명초청 방식으로 진행했다. 초청작가는 ▲후안 헤레로스(Juan Herreros, 스페인) ▲마틴레인-카노(Martin Rein-Cano, 독일) ▲비니마스(Winy Maas, 네덜란드) ▲창용허(Chang Yung Ho, 중국) ▲조성룡 ▲조민석 ▲진양교 총 7명이 참여했다. 심사 기준은 ①장소의 발견과 해석 ②주변지역과의 연계 ③고가의 원형보존 및 재구성 ④프로그램 등에 주안점을 뒀다.